東大新聞

發行人 黃壽永
編輯人 曺永祿
印刷人 方又榮
主幹 兪光震
編輯局長 金容喆
編輯部長 沈揆博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시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㉖ 8131~9
本社直通 ㉖ 8577

每週火曜日發行

今週一言

欲能不出,
思正乃語,
心無貪愛,
必截流渡.

오직 하나「열반」을 바라보고 즐거이 힘써 게으르지 않으며, 마음에 욕심의 결림이 없으면, 생사(生死)의 물을 끊어건너가리라.

<法句經>

學會活動 부활된다

全國 大學 학처장회의서 제기

學校 指導委員會議에서 결정

호국단규 부칙에 삽입 3月28日부터 시행

75년 학도호국단 체제가 출범한 이후 자취를 감추었던 학회활동이 7년만에 부활되었다. 이번 학회부활은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결정된 것으로 앞으로 학생들의 자치적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3月 28日부터 호국단규 부칙에 삽입되어 시행되었다.

세부지침은 문교부 지시에 의해 발표

이번 학회활동의 부활은 各學科의 자유로운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는데 깊은 의미가있다.

81년 12월 전국대학 학처장회의에서 제기된 학회활동문제에 이어 본교에서는 지난달 28일 개최된학교지도위원회의에서 학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호국단규 부칙에 학회활동에 관한 문귀를 삽입할것을 결정, 3월2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학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세부지침은 문교부의 학교지도위원회가 문교부의 지시에 의해 발표할 것이며 문교부의 시행세칙 지시가 오는 6월에 있을 학생장선거 이전까지 오지않을 경우에는 학교지도위원회에서 시행세칙을 6월선거 이전에 작성, 발표할예정이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학회활동 활성화를위한 호국단규 부칙은 다음과같다.

「각학과는 학술연구를 위해 각과의 특수성에 따라 학회활동을 할수있다. 다만 학회활동에 관한 세부지침은 학교지도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한편 지난달 학회명칭때문에 문제가되었던 가정교육학과 학회지는 지난달29일 배포되었다.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위해 7년만에 학회활동이 작년 12월 전국대학 학처장회의에서 제기되어 다시금 부활되게 되었다.

야구부 準優勝에 머물러

高大와의 결승전서 잦은범실로 憤敗

◇本校 야구부가 결승전에서 강적 高大를 맞아 선전을했으나 에러속출로 준우승에 머물렀다.

본교 야구부가 지난 6일 서울운동장에서 폐막된 제16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대학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난적 高麗大에 5－3으로 분패, 준우승을 차지했다.

金寅植감독이 부임후 처음으로 치룬 공식대전인이 대회에서 본교는 예선 첫경기로 부산산업대를 맞아 3회까지 1점을리드당한채 부진한 경기를 보였으나 4회말 5번 김영곤의 중전적시타로 동점을 만들며 계속된 1사 만루의 찬스에서 7번 황종선의 2타점 좌전 적시타가 터지고 상대 외야수의 악송구 까지 겹쳐 역전의 3점을 보태고 유우석의 중전안타가이어져 5－1로 승세를 굳혀 종반에 추격한 釜產大에 6－5로 승리했다.

예선 2번째 경기에서는 영남대와 격돌, 3－3으로 팽팽한 균형을 이룬채 연장전에 들입해 10회말 경기개시 직후 통렬한 우중간 3루타를 터트려 선제 득점의 발판을 마련한 1번 강정남이 9번 김평호를 1루에 두고 우측펜스를 넘는 굿바이 투런홈런을 작열시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부산의 강호 東亞大를맞은 준결승전에서 본교는 1회말 2번 유우석의 안타를 신호로 연속 3안타를 터뜨려 3점을 선취 하고 7회에도 1점을 보태 뒤늦게 힘을 낸 東亞大의추격을 뿌리치고 4－1로승리해 결승에 올랐다.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서울운동장에서 있었던 결승전 對高大戰 에서는 본교가 1회말 2번 유우석을 2루에두고 4번 한대화가 좌측펜스를 넘기는 커다란 투런홈런을 터뜨리고 선제 2득점을 했으나 수비진의 잦은 실수와 후속타 부재로 6회말 1번 강정남의 솔로홈런도 무위로 끝난채 결국 5－3으로 석패, 준우승에 머물렀다.

한편, 개인상으로는 강정남이 감투상과 홈런왕을 차지했으며 한대화는 타격 2위를 마크했다.

植木日 기념식수

6일, 明進館앞 잔디밭에서

「식목일 기념식수」가 6일 오전10시 黃壽永본교총장, 朴淇宗이사장을 비롯한 교직원 십여명이 참가한가운데 明進館앞 잔디밭에서 있었다.

明進館앞 잔디밭에 좌우로 두그루를 심은 나무는 미국산 페이칸으로 호도나무종류중의 하나인 유실수인데 이것은 본교 농과대학 임화과 박교수教授가기증한 것이다.

또한 경주대학에서는 지난4일 오전10시「식목일기념식수」행사를 가졌는데, 黃壽永총장을 비롯한 교직원및 同門 백여명이 참가하여 기숙사 주변에 사철나무 잣나무등 50여 그루를 심었다.

한편 黃壽永총장은 다음날인 5일 오전6시「전방경계근무」를 떠나는 경주 대학 2학년 남학생 2백50여명을 격려하기도했다.

경주대 도서관 개관 2시간연장

慶州大學에서는 도서관일반열람실을 지난 1日부터 현행개관시간인 오전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열람하던것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두시간 연장 개관하기로 했다.

東國人 등산대회

오는 16일 北漢山일원서 실시

제13회 東國人 登山大會가 오는 16일 오전 9시北漢山城 일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세검정 파크호텔에서 출발 일선사, 대성문, 군창지, 북한산성, 구파발까지 등반할 예정인 이번 등산대회에 참가코자 하는 학생은 오는 15일까지 팀 (1팀 4명, 리더1명 대원3명)을 구성, 참가신청서를 학생회관앞 캠프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대회에 참가할 팀의 리더회의가 오는 15일 오후3시 교수세미나실에서 실시 등산대회세부사항을 토론할 예정이다.

慶州신입생 백일장 지난30일 半月城서

慶州大學 동국문학회 (회장=강석근·국문3)에서 주최한 제4회 신입생 백일장대회가 지난 30일 오후1시 반월성에서 지도교수및 신입생,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베풀어졌다.

同백일장은 창작의욕을 앙양하고 참신한 문학도발굴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데 詩와 散文부문으로나뉘어 詩부문에는「탑」그림자, 散文부문에는「길」「휴일」「만남」이 각각 제목으로 주어진 가운데 실시되었다.

심사에는 李來秀(경주대) 교수및 홍신선 (안동대) 교수가 맡았는데 李교수는 심사평에서『기대이상으로 자기를 솔직하게 표현한 작품이 몇작품 눈에 띄었으며 더욱 특출한 작품이 없는것이 아쉽고 雨中에도 力作을 내준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라고 평을 마쳤으며 각부문 입상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詩부문·장원=강명자 (국문1)·차상=이봉윤 (경영1) ▲散文부문·차상=이승렬 (경영1)

전산원 학생장선거 오는19일 혜화관서

82학년도「전산원 학생회장선거」가 오는19일 오후5시 혜화관 6층 특강실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본 선거의 선거인단은 1학년과 2학년의 과대표, 부대표, 10개써클의 써클장들로 구성된 62명인데, 이는 작년의 2십여명에 비하면 대폭 증가된 숫자이다.

이와같이 대의원수를 강화시킨 것은 보다 넓은층의 의견을 반영시켜,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학생회를 출범케 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中間考査 일정 발표

4학년 제외, 전학년 20日부터

82학년도 제1학기 중간고사 일정이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로 확정되고 시간표가 공고되었다.

이에 따르면 교생실습을 나가야하는 4학년을 제외하고 1·2·3학년 모두 20일부터 시험이 시작되며 교련, 실습과목은 고사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고사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학생증이나 도서차람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시험에 응해야 한다.

경주 연극회 공연 1·2日「약장사」로

慶州大學 동국연극회에서는 동국연극회 신입생 환영공연을 지난1、2일 오후5시 양일에 걸쳐 인문사회학관 소강당에서 2백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두차례의 공연을 가졌다.

同회에서 공연한「약장사」는 吳泰錫作으로 우리 고유의 것을 재발견 하려는 강인한 의지와 우리가슴을 통해 그 밑에 산재되어있는 인간의 본능을 원초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자하는 내용이다.

연출에는 홍성오 (국문·2) 군이, 캐스트에는 약장사역에 전재완 (국사·2) 군과 소리역에 백명숙 (불미·2) 양이각각담당했다.

朴明姬 교수「취임강연회」가져

사범대학「朴明姬교수 취임강연회」가 지난25일 오후3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있었다.

2백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 강연회에서 朴교수는「都山家口의 購買行動에 관한研究」를 발표했는데,『소비자들은 기업판매 전략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구매행위의 구체적인 모델로는 칼라TV를 선정했는데, 이에대한「購買方法을 決定하는 家族性格의 6가지요소」등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와 올바른 소비 선택을 하기위한 소비자교육에 대하여 언급했다.

慶州大 탁구 우승

「영남지역 탁구대회」에서

대한탁구협회 주최로 지난 26、27일양일간에 걸쳐 울산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회 영남지역종별탁구대회>대학부에서 慶州大學의 양창욱 (무역·2) 君을 비롯한 4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개인전과단체전을모두 석권하는개가를올렸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본교의 양창욱 (무역·2) 박대만 (영문·1) 조영래 (수학·2) 배호한 (무역·1) 군등 4명이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것을 비롯하여 개인단식부문에서는 양창욱 (무역·2) 군이 우승을, 조영래 (수교·2) 군이 3위를 각각 차지 하였으며 개인복식 부문은 조영래(수교·2) 박양욱 (울산공전)조와 양창욱 (무역·2) 배호환 (무역·1) 조가 우승과 준우승을 각각 차지하기도 했다.

日、國士舘大 축구팀 來校

본교 초청으로 日本의 國士舘대학 축구팀이 지난달 29일 來校, 대운동장에서 본교 축구부와 3경기를 갖고 1승1무승부1패를 기록했다.

본교 축구부와 매년 상호 정기교류전을 갖고 있는 國士舘大는 임원5명, 선수19명등 모두 25명이 來校해 지난2일 귀국했다.

慶州 호국단세미나 강성윤교수 강연도

82학년도 慶州大學 학도호국단의 간부야외세미나가 지난3일 월성군 양남면소재 감은사지와 대본리 등지에서 개최되었다.

상임지도교수를 비롯한학생장등 상임위원과 운영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申학장의 격려사에 이어「학도호국단 운영의 효율적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으며 호국단 상임지도교수인 강성윤 교수와 최규철 교수는「간부로서의 리더쉽」에 대해 강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운영위원과 상임위원들의 세미나를 총평하는 평가회를

사범대 特別 講演會 「教育과 教職」 연제로

師範大學 特別 講演會를 4월6일 학림관 소강당에서『教育과 教職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명제를 내걸고 5時부터 7時까지 갖게된다.

이번 강연회는 사범인들이 사범인의 진정한 의미를 구현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로써「스승과 교사」「民族教育의 問題」「현대사회와 전통적인 教師像」「大學과 學問의 自由」라는 연제로 金長好(本校 사범대학장) 교수, 장진호(경희大) 교수, 朴先榮(本校) 교수, 金雲玉 (本校) 교수가 각각 강연을 하게되며 강연후에는 질의및 토론이 있게된다.

또한 사범대학신입생에게는 기념품 증정도 있을 예정이다.

월례 정기법회 지난31일 정각원서

「월례정기법회」가 불교대학 학도호국단 종교부 주최로 지난3월31일 오후5시 정각원에서 있었다.

「불교와 인간성 회복」이라는 연제로 개최된 본법회에서 인환스님(본교 교수)은 종교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뒤 善을 지향할것을 강조했다.

또한 종교는 인생구세를 위한 것이며 특히 불교는 깨달음을 얻은후 나아가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고말했는데, 善을 행하기 위해 자각하고 실천하는 방법으로서의 참선을 말하기도 했다.

국문과 백일장 지난27일 정릉서

文理大 國文科 신입생白日場이 지난 27일 오전10시 李東林, 金起東교수 등 국문과 교수및 학생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릉에서라있었다.

詩와 隨筆 두부문에 걸쳐 실시된 이날 백일장에서 詩部壯元은 임의순君이 차지했으며 隨筆部門 壯元은 나은주양이 차지했다.

한편 국문과에서는 30일 오후5시 학생세미나실에서 시집 그로테스크한 부활을 가지고 합평회를 가졌다.

농연 입부식 체육대회도 겸해

농어촌연구부 신입회원입부식이 지난5일 오전11시 학생회관3층 상설전시장에서 있었다.

同써클 입회원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입부식에서는 신입회원들의 선서등이 진행되었으며 입부식후에는 입회원들간의 체육대회가 있었다.

10일, 大學院 특별강연

고병익교수,「東아시아圈에대하여」

대학원에서는 오는 10일(土) 오전 10시 대학본관 교수세미나실에서 특강을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대학원특강은 고병익(前 서울大총장) 박사가「東아시아圈에 대하여」라는 演題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1日 교수세미나실에서 실시된 특강은대학원 자연과학계 교수와 대학원생, 학부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무식 (과학원 교수) 박사가 슬라이드 기재를 사용하여「자연과학의이해와 그연구」라는 연제를 갖고 自然科學的인 사고체계를 액체를, 전해질용액, 고분자물질에 응용하여 설명했다.

東國文學會「3人詩畵展」가져

東國文學會의「3人 詩畵展」이 6、7、8일 사흘간에 걸쳐 학생회관 2층 학생세미나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게된다.

이번 詩畵展은 東國文學의 활성화와 학생들 사이에 창작활동을 運動化하기 위한 것으로 강민숙 (佛教 2) 윤재웅 (國文 2) 최종홍 (國文 2) 등이 50여점의 작품을 전시발표하고 있는데 이 作品展의 마지막 날인 8일오후 6시에는 東國文學會 지도교수인 宋赫교수등이 참석해, 作品 낭독회와 토론회도가질 예정이다.

國教科 백일장 11日 행주산성에서

師範大學 國語教育科에서는 오는 11日 행주산성에서 全學年은 대상으로 백일장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갖게되는 國語教育科 백일장은 연례적인 행사로 國語教育科 學科長과 지도교수, 학생이 참가하게 되는데 國教科 창작실습의 일환으로 오전9時 불상앞에 모여 출발할 예정이다.

여학생 특강 6월24일까지실시

「여학생 특강」이 여학생감실 주관으로 지난 3월29일부터 오는 6월24일까지 3개월간 실시된다.

여학생들의 교양및 여가선용의 질을 높이고자 개최되는 본 특강은, 월요일에는 에어로빅 댄스, 수요일은 꽃꽂이, 목요일에는매듭을 가르치게 된다.

수강을 원하는 여학생은 여학생감실에 신청하면 특강에 참가하면 되는데 특강료는 무료이고 재료비만을 부담하면 된다.

현재도 그 호응도가 높아 백여명이 참가하고 있는데 신청은 계속 받을예정이며, 시간은 오후4시에서 5시까지이고 장소는계산관 1층이다.

지난2日 교생실습 오리엔테이션 가져

사범대학에서는 82학년도 교생실습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교생실습 오리엔테이션」을 서울과 경주에서 지난 2일 각각 실시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師大학장 金長好교수와 김병옥교수및 동대부중 곽기훈교감이 배석, 4月7日부터 5月4日까지 1달간 실시하게될 교생실습에대한 주의사항및 예비 교사로서의 자질에 관한 제문제점에대해 강의했다.

校內 잣나무등 移植 조경사업 일환으로

관재과에서는 지난 5日식목일을 즈음해서 본교 부설 연습림 관리소에 있는 잣나무등 모두 6백50여그루를 교내에 이식했다.

이번 사업은 본교의 조경을 위해 이미「조경자문위원회」가 지난달에 발족되어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불상앞, 후문입구, 혜화관 주위등에 그간 연습림 관리소에서 가꾸어 오던 각종 묘목을 이식하게 된 것이다.

本社辭令

任期滿了 編輯部長 金寶柱(政外4) 取材部長 鄭義成(國文4) 文化部長 崔恩榮(國教4) 慶州大 寫眞部長 梁在珍(慶州經濟4)

命 編輯部長 沈揆博 (통계3)
命 取材部長 白光烈 (農經3)
命 企画部長 朴星泰 (통계3)
命 文化部長 羅惠淑 (國教3)
命 慶州大 取材部長 梁熙台 (경주英文3)
任 記者 洪仁詰 (경주국문2) 徐鍾語 (경주법학2) 免修習記者
依願免職 朴京錫 (教育2)

<以上 4월1일字>

보리수

佛教의 여성관 (Ⅳ)

어느종교나 그렇지만 불교교단은 특히 희사(喜捨) 보시 (布施)를 중요시하고 있다. 어느 일정한 규정을 하여 희사를 강요한다기 보다 스스로 가진 것을 교단이나 사회에 바쳐야 함은 하나의 중요한 덕목이다. 우리 한국불교를 길러온 천수백년동안의 불교 교단도 거의 여성들의 보시·희사가 없었다라면 그 방향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해 볼때가있다. 그래서 신자의 80%는 여성으로 구성되었고, 따라서 여성이 아니면 교단이 유지될수 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예는 인도의자료에서도 많이 눈에 띤다. 특히 南伝資料에 보이는 우바이 (優婆夷=여성신도)로서 비샤아카아(Visakha) 라고 이름하는 경건한 여성이 있었다. 앙가의 밧디야시의 호상 (豪商)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붓다가 재세하실때의 신자였다. 붓다와 그 제자들을 늘 자기집에 초청하여 공양을 올리곤하던 아름답고 정성어린 여성이었다.

남편<미가아라>는 이교도였으나 그로 하여금 불법(佛法)에 귀의토록 만들었을때 남편은 아내 비샤아카에게 깊이 감사하고 자기 어머니를 대하는것같은 경애를 바쳤기때문에 그후부터 그녀는<미가아라의 어머니>라고 불리었다고한다.

그후 비샤아카는 매일 스님들을 초청·공양하고 오후에는 붓다를 방문하여 설법을 듣고, 사원을 돌아보고 승니 (僧尼)에게 필요한 일상용품들을 알아보고 찾아 구해주었다. 초기 붓다의 주변에서 비샤아카는 보시제일 (布施第一)이라고 칭송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부처님 교단에 바친 최대의 기증은, 사위성 (舍衛城)의 동쪽 성밖에 있던숲속에 사원을건립한일이다. 이절을 동원정사 (東園精舍)라고 하는데 사위성 남쪽에있던 기원정사(祇園精舍)와 함께 부처님 만년의 25년동안, 사위성에 유행하실 때는 낮과 밤을 번갈아 왕복하였던 절이다.

이처럼 불교사에서의 여성은, 붓다가 생존한 초기교단때부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교단보호자였다. 그여성은 한국의 오늘의 교단에서도 똑같이 교단보호자의 역할을 담당하고있다.

그러나 지금은 古代社會와 같이 한가한 시대도 아니고 단순하지도않다.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여성은 보다 적극적인 보시와 창조적인 희사로서 보시의 뜻을 살려야 하리라고생각된다. 우리의 사회 구석구석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않는 보시의 덕행이 여성들의 슬기로운 일거리가 될때, 어려운 제도같은개혁없이도, 밝은 미래사회는 성장되고 발전되리라고 믿는다.

<李永子>

英語책은 時事英語社

내용이 훨씬 알차고 새로와졌읍니다.

4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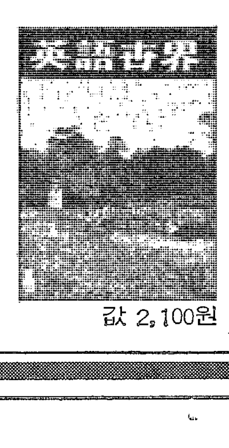
時事英語研究

창간 23주년 기념호

The "Missing Revolution" of Our Times
(다가오는 공산주의의 숙명적 종말) ……by Richard Lowenthal
Contradictions in the Soviet Union
(거대한 兵營—소련 붉은帝国) ……by Max Lerner
Communism: The Great Economic Failure
(수렁 속에서 신음하는 붉은경제) ……from U.S. News & World Report
○「한국 영어교육 100년 기념 세미나」주제 발표문
효율적인 국민학교 영어교육을 위한 제언 ……한국 외국어대학교 박 순함 교수
○영어회화공부의 올바른 길
얼굴이 두꺼워지자 체면을 내던지자 ……서강대학교 Edward F. Klein 교수
『한국代表短篇』英譯 장 마
BOOK BONUS : The Petrodollar Connection
▩ 해외논조 / 시사만평 / Photo Essay
▩ 내가 요즘 읽은 영어원서 / 실용 美 숙어해설
▩ TOEFL Test / 나의 유학기 / 英語街散策
▩ Pop음악의 세계
▩ 考試英語 / 무역영어강좌
▩ 英作文교실 / Men & Ideas
映画台詞 크로스·인카운터

값 2,200원

英語世界



How Men Grow Up Sexually (성장변천하는 男子의 性)
Charisma (당신도 사람을 끌 수 있다)
Cheap Talk (헛소문의 진상 : 유언비어의 발생학적 고찰)
Reading Faces (모나리자의 신비를 벗기는 심리학적 관상학)
主要記事 英詩/젊은세대에게 주는 글/움직이는 世界/Pop Song/상황소설: 폴란드女人 졸라의 사랑/화제와 인물/생활과학정보/英文法/漫評.
英語講座 TIME·Newsweek 英語研究 생활에 응용되는 英語会話 일어·영어 회화가이드
映画台詞 바람과함께사라지다

값 2,100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5의3
時事英語社

정기구독 문의처
서울 (266) 9936 (266) 9905 (265) 0509 (260) 2588
부산 (43) 3007 (42) 0163
대구 (45) 8890 대전 (26) 7176
광주 (2) 2376 전주 (2) 5328
수원 (6) 1478 인천 (73) 7170

82년에 나온 가장 새로운 한영 콘사이스

뉴우월드 콘사이스 한영사전

● 韓國의 代表的 韓英/最新·最大·最高내용

▣ 다른 사전에는 없는 새 특색

영어회화/영작문을 위한 활용예문을 가장 많이 수록 : 이 사전은「즉석 영어회화 사전」,「즉석 영작문 사전」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full sentence예문을 다른 어느 사전보다도 많이 실었고, 연어와 성구도 남달리 많이 수록했읍니다.

새로 생긴 오늘의 우리말을 모두 수록 : 이 사전은 이미 쓰이지 않는 우리말 고어를 솎아내고, 그 자리에 국어 대사전에도 아직 실리지 않은 각분야의 새 우리말들 (「태양열 주택」「졸업정원제」「수몰지역」「우주왕복선」「자연보호」「취로사업」등)을 찾아 수록함으로써 명실공히 가장 새로운 사전이 되게 했읍니다.

우리말의 영어다운 영어풀이 : 새로 나온 사전도 케케묵은 영어가 담겼으면 낡은 사전입니다. 이 사전은 새 사전답게 우리말에 해당하는 English equivalent(영어 상당어)를 오늘날 널리 쓰이는 살아있는 현대영어로 풀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읍니다.

영어의 오용을 막는 여러가지 안전장치 : 이 사전은 한국인이 흔히 틀리기 쉬운 명사의 Countable/Uncountable, 관사의 유무, 동사와 전치사의 연결, 배어법 등을 철저히 밝혀 영어를 틀리지 않고 옳게 쓰도록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하였읍니다.

시사영어사 편집국 편/콘사이스판 1098면/값 5,000원

82 新刊 뉴우월드 데스크 英韓辭典 국판 2140면 / 값 20,000원

● 뉴우월드 韓英大辭典
● 뉴우월드 英韓大辭典
● 뉴우월드 콘사이스 韓英辭典
● 뉴우월드 리틀英韓辭典
● 뉴우월드 콘사이스 英韓辭典
● 뉴우월드 리틀韓英辭典 (近刊)
● 뉴우월드 中学英語辭典
● 뉴우월드 高校英英辭典
● 뉴우월드 英文法辭典
● 뉴우월드 英作文辭典
● 뉴우월드 時事英語辭典
● 뉴우월드 미니英韓/韓英辭典

時事英語社 주문전화 : 서울(722)9761 (266)6795 (725)5064 (269)8823 부산(43)3007 대구(45)8890 대전(26)7176 광주(2)2376 전주(2)5328 인천(73)7170 수원(6)1478

사설

學會活動의 活性化

本大學校가 설립된지 어언 80년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그간 여러방면에 걸쳐 눈부신 活躍을 했던 인사들을 많이 輩出하였다함은 이미 周知된 바라고 하겠다。그가운데서도 특히 文壇을 비롯한 몇개分野에 있어서는 한때 타교출신들이 따라올수없을정도로 本校出身들이 탁월한 力量을 발휘하였다는것도 잘 알려져있는 사실이다。이처럼 社會의 일반활동이나 전국적인 학문연구에 있어서 本校卒業生들이 특출한 위치에 서게된것은 그의 在學時節의 학문연구가 착실했기때문이라고 우선 생각하지않을수 없는것이다。

원래 대학이란 학문의 전당이며 따라서 대학에 여러가지 활동이 있지만 학문연구보다 더 우선하는일은 없는 것이다。이래서 학생들은 각기 소속학과의 필요과목을 이수하는 한편 그룹을 짓거나 과별로 모여 어떤 문제를 공동 연구활동더러 토론하는것을 제일목표로 삼고있다고 볼수 있다。또한 그에그치지않고 연구되고 토론된 내용을 잡지에 실어 발간하기도 한다。본교만 하더라도 지난날 각종의 학술세미나와 학술토론회가 있었음은 물론것도 없거니와 東國文學을 위시하여 東國思想및 東國經濟등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발행된 학술잡지등이 많이 있었음을 잊을수가 없다。

혹 어떤이든 학문을 연구하여 자기만 간직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지 모를 것이다。그러나 그러한 자세로는 학문연구의 발전을 바랄수 없는 것이다。자기가 얻은 이론에 모순이 있는가 없는가 따져봐야할 것이며 또한 그 이론이 어느 수준에 달한 것인지도 평가받아 봐야할줄로 안다。이런 의미에서 볼때 같이 모여 학문을 연구하고 그것을 잡지에 담아 발표한다는 것은 여간 중요하지 않을수 없다할 것이다。

本校의 학문연구활동을 살펴건대 요즘 실히 低調狀態에 있음을 느낄수 있다。개학이 된지 벌써 한달이 넘었는데도 이렇다할 學生들의 학술토론회나 세미나같은 것을 찾아볼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학생들이 그룹명칭이나 학회이름으로 학교연구실을 빌려쓰고있음을 모르는것은 아니다。그렇지만 그들의 활동이란 그곳에모여 독서하는것이 고작이다。다시말해서 일정한 테마를 정해놓고 토론하거나 합동연구한다는 일같은것은 전연 생각지도 않고 있다는듯이다。

그뿐아니다。종래에 발간되었던학생주관의 학술지들이 적지않게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지금 불교대학의 동국사상 사범대학의 師苑및 동국문학등이 발행되고 있지만 학생주관이라고 하기보다는 학교측주관이라고 표현하는편이 더 합당할것이다。

크게 양보해서 상기 學術誌가 학생들에의해 발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대학교의 그것과 비교한다면 너무나 작은수가 아닐수없다。

그래서 학도호국단의 운영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수없으나 아울든 질서있게 그룹이나 학과를 單位로 더 크게는 單科大學을 단위로하여 여러가지 形態의 학문연구를 활발하게 전개해주었으면 좋겠다。本校는 몇해전과는 달리 현재 勉學雰圍氣가 깊게 조성되어있으며 이런 까닭에 학생들은 이제 학문연구를 통하여 實力을 과시할때가 왔다고여겨진다。

학생들이 학문연구를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것은 관계도서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그런데 과거에 우리는 공부를 하려해도 關係書籍이 없거나 아니면 目錄에는 있어도 이미 다른 사람이 빌려간 뒤으로 제때에 볼수없다는 소리를 종종 듣고 있다。그러므로 학교측은 필요한 서적에 대한 통계를 제대로 잡아 需要가 많은 책은 좀더 많이 구입하여 학생들의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힘써 주기를 당부해 둔다。

한편 학술지의 발행이 학문연구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함은 앞서 지적한바 있거니와 졸업생과 재학생의 유대를 강화하는데에도 많은도움을 준다고볼수있다。

졸업생의 기고를 통해 그방면의 연구를 깊게할것은 두말할것 없고 또 人間關係에 있어서도 자연히 밀접해지지않을수 없으며 이는 다시 後輩들의 진출에도 不少하게 도움이 된다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學術誌發行에는 비용이 따르지않을수 없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어려운 問題가 아닐수없다。학술지를 발행하기위한 費用을 마련하고저 어떤 그룹들은 장사까지 했다고 듣고있지만 그런行爲는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容易한 일이아니다。한번쯤 성공했다해도 결코 계속되기 힘든다고 보아야할것이다。

그러하여 우리는 학생들의 학술지 발행에 소요될 資金을 되도록 學校側에서 부담하도록 그 方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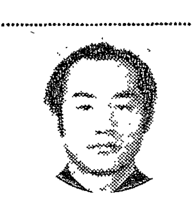
어느 정도로 正確한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本校에는 기본과목에 관한 특강이 일부 학생을 위해 열리고 있다하여 그 費用을 학교측에서 보조하고 있다고 하고있다。

이런 특강같은 것은 他大學校에서는 벌써부터 폐지하고있거나 가령 열고있다고 해도 受益者負担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형편에 있다한다。이런 관점에 선다면 특강에 보태주는 돈을 전체 학생을 위한 학생들의 학술지 발행에 돌려주는 길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마저 든다。

大学閑話

觀念의 虛像

宋錫球 <文理大교수·동양철학>



내가 대만에 가기전 대만을 잘 알고 있는 소위 대만통이라는 사람들이 대만에서 배울점은 그들의 여유있는기풍이라는것이다。예를 들면 아무리 소나기가 퍼붓더라도 그 소나기를 피하려 뛰지 않고 유유자적하게 소나기를 맞고 걷는다는 것이다。이런한 종류의 대만 사람들에 대한 코멘트는 나와같이 좀 걸음이 빠르고 긴장된사람에는 신선(神仙)의 여유와 대인풍을 그리워 하는·선망을 갖게하였다。그래서 이번기회에 대만에 가면 그야말로 여유와 한가를 즐기는 소유의 기상을 몸에 익혀 걸음도 천천히 그리고 君子는 大路行이라 했으니 大路를 걷는 습관을 길러보자고 마음을 먹었다。한편 진정 그들의 大人風道가 우리한국사람에게는 없는가 하는 것도 보고 싶었다。

드디어 나에게도 그러한 기회는 왔다。소나기가 몹시 쏟아지고 있는데 진정 대만 사람들은 뛰지 않는것이 확인되었고 나는 뛰고 있었다。그러나 나중에 알고 생각 해 보니 뛸 필요가 없었다。人道에 까지 처마가 내려진 길로 들어가서 서서히 걸으면 되었고 또 소나기는 어쩌다 갑자기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번씩 그 뜨거운 햇빛을 서늘 하게 하여 주고 있었다。몇개월 살면서 나는 그야말로 大人風道와 神仙의 여유를 갖는 사람이 되었다。나는 속으로 기뻐 했지만 사실 내가변한 것은 그곳의기후조건과자연환경이 그렇게 만든것에 지나지않았다。뛸 필요 없는 人道의 시설과 자주 쏟아지는 소나기 그것을 맞는다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것을 느낀것은 내가 과거 한국에와서 소나기를 맞았을때 역시 나는 뛰었고 공사판을 피하고 먼지투성이의 大路를 피하고 골목을 찾았던 그 순간 나는 역시 변하지 않은 小人(?)에 지나지 않는다고 느꼈다。

얼마전에 신문에 보니 한국인과 일본인의 성격과 질서관념을 비교하는 내용을 보았다。일본인들은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우리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이다。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平面的으로만 비교하면 그럴수도 있을런지 모른다。그러나 우리는 국민이 공중도덕심이 약하다고는 보지 않는다。일본의 거리는 골목까지 포장되어 있으며 또한 연료가 연탄도 아니고, 쓰레기차가 일종의 자동 쓰레기처리장으로 되어 그들의 오물을 가려 내고 있기때문이다。이 거리환경이 더럽힐수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오직 정신만은 아니었다。비록 국민성을 비교하여 계몽적인 역할을 한다하더라도 우리는 좀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정신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일이다。그러나 정신만 강조하고 그에 따른 자연및 사회 환경을 무시하여 정신일변도만 강조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독단이다。정신과 자연및 사회환경을 조화하여 거기에서 진정한 창조적 현실이 발견될때 바른 정신 바른 환경이 형성된다고 보여진다。

觀念의 虛像이 얼마나 空虛한 것인지 다시 照明해야 될것 같다。

油價와 韓國經濟

油價下落、韓國 제2경제도약의 계기

中東정세의 급변 油價의 방향을 급선회시켜

산유국들 軍備·經濟개발필요로 減産 어려워

朴康植 <경상대교수·理論경제>

70년대에 두차례에 걸쳐 세계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몰아 넣었던 석유의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떨어지고있다。

이러한 현상은 油價폭등에 따른 고통을 뼈저리게 체험했던 우리나라와같은 석유수입국들에게는 石油輸入代金의 감소로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이는 국민소득과 고용증대를 가져옴으로써 공통적인 經濟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소망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해외의존도 특히 中東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이고 보면 油價下落에 따른 위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에 못지않게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다。이는 석유수입이「中東開發붐」의 원천이 되어 왔고 따라서 油價下落은 中東産油諸國의 投資財源을 축소시킴으로써 우리의 對中東進出에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석유수입의 90% 이상, 商品輸出의 10%, 海外建設의 90%가 中東 OPEC 8개국에서 이루어지고있으며 15만명이 넘는 人力이 나가있다。

특히 이나라들을 주축으로 전개되고 있는 海外建設은 70년대중반 이래 우리나라의 國際收支와 經濟成長 및 雇傭增大에 막대한 기여를 해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對中東의존도는 세계 어느나라 보다도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최근의 油價下落의 배경과 그 展望을 알아본 다음 그러한 현상이 우리 經濟에 미칠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고찰해 보고자한다。

1、油價下落의 背景과 展望

石油價格(OPEC平均公示價)은 表1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1973~74年(第1次石油波動)에 4倍나 뛰었는데 그후 78年까지는 배럴당11~13弗線에서 安定을 유지하였다。그러나 1979~80年(第2次石油波動)에는배럴당 30·87弗까지 폭등하였으며 81年에는 34·53弗에 이르렀다。

그러나 油價는 1981年 下半期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여 사우디産 輕質油만이 34弗線을 유지하고 있을뿐 英國 이란등의 油價引下로 현재 國際原油價格은 32·5弗線까지 떨어졌으며, 現物油價는 公示價를 4~6弗이나 하회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수준은 81년 1/4분기의 35·98弗에 비하면 9·6%가 하락한 것인데 만일 OECD제국의 평균 인플레율 10%를 감안하면 1년사이에 실질유가가 20%나 하락한 셈이다。이와같은 최근의 유류하락은 석유의 공급과잉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먼저 석유수요측면을 보면 ①세계적인 경기침체와 ②고유가에 따른 석유소비절약및 에너지소비구조의 전환 ③정유회사들의 비축비용(연간배럴당6~11弗)및 석유제품가격의 하락에 따른 수지악화를 이유로 재고수요가 줄어듦으로써 자유세계 전체의 석유수요량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IEA에 의하면 1973~81년 기간중 OECD諸國의 GNP단위당 石油消費量은 약32%가 떨어졌는데 이중 50%는 에너지消費構造轉換에 기인한것이라고 한다。그리하여 自由世界石油消費量은 1979년의 5천2백만배럴/日을 고비로 1981년에는 46·5백만배럴/日로 불과 3년동안에 10%가 감소하였다。

한편 공급측면에서는 高油價에 따라 英國 멕시코등 非OPEC産油國에서 석유개발이 급속히 이루어 짐으로써 이들의 産油量이 1975년의 16·0백만배럴/日에서 81년에는 18·9백만배럴/日로 크게 늘어났다。뿐 OPEC諸國의 産油量은 77년의 31·4백만배럴을 고비로 81년에는 22·5백만배럴/日로 줄었다。

그러나 82년에 들어서는 석유수요감퇴와 정유회사의 在庫放出增加및 非OPEC제국이 생산을 증대함으로서 현재 國際石油市場에는 200~300萬배럴/日정도의 석유가 남아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공급과잉으로 유가가 떨어지자 OPEC회원국들은 지난 3·19~20日 이틀 동안 임시회의를 갖고 現行 OPEC기준유가 34弗/배럴을 고수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위해 현재1900萬배럴/日인 OPEC의 산유량을 4月1日부터 1800萬배럴/日로 감축하고 이를 위해 國別로 産油量을 割當하였다。(表2)

그러나 이러한 OPEC의 조치는現在의 供給過剩을 해소할수 없어 油價는 당분간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인것같다。그 이유는 첫째, 이번의 減産規模가 현재의 공급과잉에 못미치는 수준이며 둘째 世界經濟가 아직 회복기미를 보이지않고 있어 석유수요가 急增하기 어려우며 셋째, OPEC의 대부분 會員國들의 감산여력이 이미 한계에 달하여〈表2〉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할당감산량을 지키기 어렵다는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OPEC각국의 경제적및정치적 사정을 감안할때 종래와같이 단결력을 과시하여 할당량수준으로 감산하기는매우힘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중에서도 나이제리아와 알제리등은 자금수요가 매우크며 이란과 이라크는 전비만도 매월10억불이나 되고있다。

또한 사우디 쿠웨이트및 UAE 등 GULF연안국들은 밖으로는 이란이나 소련으로부터의 외침위협성이 있는데다 안으로는 反王政세력 또한 만만치않기 때문에 군비확대와 경제개발의 필요성이 매우높기 때문에 자금수요가 큰실정이어서 감산하기가 쉽지않은 실정이다。

끝으로 과거 예로 보아 2/4분기 이후에는 석유수요가 감소할 것이며 油價下落이 予見됨에 따라 정유회사들의 在庫(81년말 약50억배럴)방출이 유가하락을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이러한 諸要因을 감안하여 Morgan Guarantee Trust는 油價가 82년중에는 81년대비 15%가 낮은 29~30弗線으로 그리고 83년에는 81년보다 25~30%나 낮은 26~27弗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볼때 위와 같은 전망은 상당히 확실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油價는 短期的으로는 下落할것이나 長期的으로는 上昇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表3)즉 油價는 1984年까지는 실질가격이 하락할 것이나 1985年 이후에는 上昇하기 시작하여 世界인플레율을 약간 상회할 것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유가하락에 따른 世界景氣 回復으로 석유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原子力등 대체에너지 개발도 환경공해문제등으로 한계에 달할것이라는점등이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이란사태로 제2차 石油波動이 발발했던 경험을 감안하면 현재 이라크戰의 확대등 중동정세불안이 심화될경우 제3차 石油파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도 油價상승의 가능성을 더해주고 있다。

2、油價下落과 韓國經濟

우리나라는 石油수요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등 對外依存度가 크기때문에 우리經濟에 대한 油價下落의 파급효과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우선 油價가 下落하면 우리나라의 石油輸入代金이 줄어들어 국제수지가 개선된다。우리나라의 석유수입량이 81년도에 약 182百萬배럴이었으니까 금년에도 같은 量을 도입한다면 유가가 1弗떨어짐에따라 輸入代金은 年間 약2億弗이 감소하게된다。따라서 Morgan Guarantee Trust가 예측한대로 83년말까지 油價가 25~30%(배럴당 약7弗)정도 내려간다면 무려 14億弗이 절약될것이다。

그런데 유가의 변화는 國際經濟전반에 걸쳐 파문을 가져옴으로 유가하락에 따른 우리나라 국제수지개선효과는 석유이외의 상품과 用役 그리고 資本등 對外去來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따라 그크기가 결정된다。

먼저 非石油商品의 輸出入은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호전될것이므로 상당히 늘어나게 될것이다。油價가 25~30% 떨어질 때 OECD諸國의 GNP는 1~1·5% 성장하고 소비자물가는 약 3%가 하락 한다고 Morgan Guarantee Trust는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OECD GNP성장에 대한 수출탄력성이 6이상이고 또 총수출의 80% 이상이 이들나라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向後 2년동안 油價하락에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은 6~9%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또한 이들 나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90% 이상이므로 우리나라의 수입대금도 3%정도 줄어들게 된 셈이다。

그러나 유가하락은「中東붐」을 냉각시킴으로써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이는 用役收入의 감소를 초래할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해외건설受注額은 81년말현재 450억불대에 육박하였는데 이중90% 이상이 中東8個 産油國에의해이루어졌으며 外貨稼得額은 무려 63억불에 이르렀다。

그런데〈表1〉에 볼수있는 바와같이 中東건설시장규모는 石油收入의 크기와 정비례하고 있다

따라서 유가하락과 수요감퇴로 인한 유가수출감소(약10%)를 고려할때 금년도 中東산유국의 석유수입은 79년수준으로 줄어들것이고 건설공사발주액도 상기년도수준에 그칠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 중동산유국들은 自國化시책을더욱 강화해나갈것이 확실하다。그렇게되면 中東각국은 既發注工事에대한 旣成高의 지급을 지연시킬 것이고 때로는 현금보다는「리비아」와같이 원유로 지급함으로써 수익성이 저하될것으로 예상된다。물론 OECD諸國에서 인플레率이 하락하면 기자재비가 절감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임금상승을이 순화한다면 勞務費감도 가능하여 수익성을 다소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新規工事는 당분간 상당히축소될 것임으로 지금까지와 같은 지속적인 受注增大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같다。물론 自國化施策의 强化로 現地業体의 受注는 늘겠지만 先進諸國의景氣가 浮揚된만큼 對中東進出努力이 완화됨으로써 中東市場에서의 受注競爭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油価下落은 國際金利를 떨어뜨려 우리나라의 利子負担額은 상당이줄어들 것이며 借款條件도 그만큼 改善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Libor가 2% 인하된다면 우리나라의 이자부담은 약 5億弗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이는 일부 OPEC國들이 借入國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제금리를 올릴것이지만 특히 先進工業國들이 인플레率 둔화에 따른 貨質金利의 상승으로 名目金利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油価下落은國際收支를 개선할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물가하락과 금리인하도 가능하게할 것이다。우리나라의 産業聯關表와 都売物価指數 작성상의 価重値를 고려할때 油価1% 인하는 도매물가를 0·11%를 하락시킨다。그러므로 83년까지 유가가 25% 하락하게 되면 도매물가는 무려 2·65% 인하요인이 생기게되는 것이다。여기에 유가하락에 따른 輸入物価下落分을 포함하면 물가하락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

만일 물가가 위에서 논한대로 하락한다면 이는 實質金利를 상승케 함으로써 名目金利의 인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우리나라는 최근에 유가하락에 힘입어 금리인하를 수차례 단행한바있다。이러한 금리인하와 더불어 만일 企業人들이 유가하락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景氣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만 제거해준다면 投資도 크게 늘어날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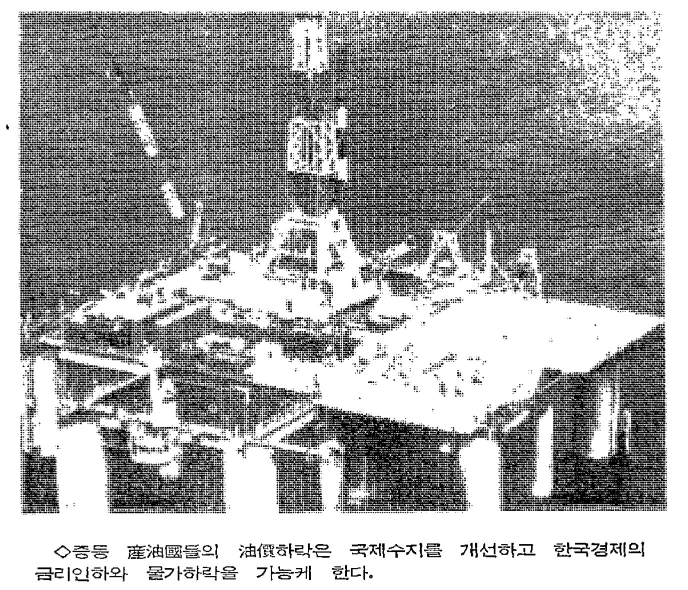
그리고 금리가 위에서 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우리경제는 고도성장을위한 계기가 마련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우선 석유대금절약분14억불은 일차적으로 우리나라 GNP의 2·2%성장을 가능하게할 것이다。여기에 물가와 금리의 하락이 이어지면 소비수요와 투자수요가 증대될수 있을것이며, 선진공업국의 경제성장으로 수출수요증대까지 가세한다면 우리나라의 경기는 되살아나고 경제는 더욱 성장할수있을 것이다。

3、맺음말

지금까지 OPEC가 형성된이래 처음으로 油價가 떨어짐으로써 우리 경제는 막대한 이득을 보게된다는 사실을 규명하여 보았다。

만일 油價가 위에서 전망한 대로만 하락한다면 이는 우리 經濟의 宿題도 풀릴수 있고 재도약의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따라서 政府의 시기적절하고 과감한 시책이 어느대보다도 요청된다 하겠다。

그러나 油價下落에 대하여 지나치게 기대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70年代에 우리가 경험했듯이 中東情勢의 급변은 유가의 향방을 급선회시킬 가능성이매우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할 것이며 따라서 석유소비절약 노력을 조금이라도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중동 産油國들의 油價하락은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한국경제의 금리인하와 물가하락을 가능케 한다.

<표1>

中東 産油國의 石油關聯主要指標

	75	76	77	78	79	80	81
石油 輸出量	20,910	23,925	24,025	23,100	23,860	·	·
平均 公示價 ($/배럴)	11.02	11.77	12.88	12.93	18.63	30.87	34.53
石油 收入 (億 $)	838	1,020	1,041	963	1,501	2,199	·
건설 공사발주 (〃)	283	364	464	304	307	395	697
商品 輸入 (〃)	334	400	534	614	668	893	·

<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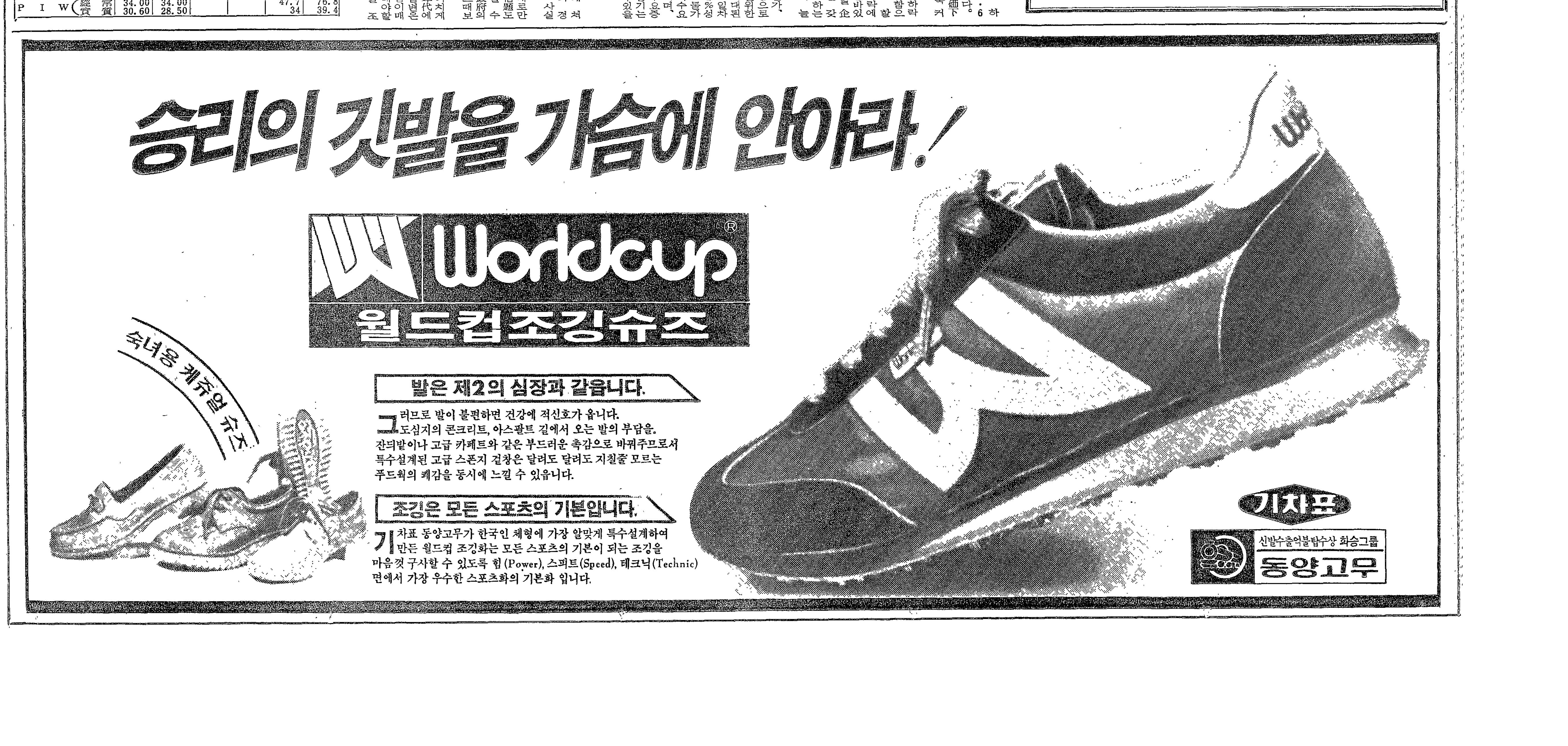
OPEC各國의 減産能力比較

	外換保有高 (10億달러)	經常收支均衡에 필요한산유량 (千배럴/日)A	생산할당량 (千배럴/日)	現在産油量 (千배럴/日) B	A—B
사우디 아라비아	161.6	6,410	7,500	7,900	1,490
리비아	33.4	1,070	750	870	—200
쿠웨이트	76.2	900	650	850	—50
U·A·E	38.6	810	1,000	1,400	590
카타르	16.1	60	300	360	300
이란	3.0	3,610	1,200	950	—2,660
이라크	31.8	2,110	1,200	950	—1,160
나이지리아	4.5	2,230	1,300	1,800	—430
알제리	3.8	1,200	650	700	—500
가봉	0.7	160	150	150	—10
베네주엘라	7.7	2,400	1,500	2,100	—300
에쿠아도르	0.7	220	200	200	—20
인도네시아	10.0	1,500	1,300	1,600	100
合計	388.1	22,680	18,000	19,830	—2,850

<표3>

OPEC 平均公示油價展望 (단위 : $/배럴)

	1981	1982	1983	1984	1985	1990
D R I	34.02	34.05	36.16	39.38		
W E F A	34.90	34.90	38.70	44.20		
P I W 經常	34.00	34.00			47.7	76.8
P I W 實質	30.60	28.50			34	39.4



抒情主義와 그 克服

『東國詩集·15』를 읽고

다른 정신적 창조행위와 마찬가지로, 문학은 끊임없이 스스로의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의 위치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 그것은 자기성찰이야말로 문학이 정신의 자족적인 놀음으로 전락하는 위험을 방지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색과 실천이 보다 의미있는 성취를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가장 성숙한 전략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들어 발행된 「東國詩集」 제15집은 東國詩에 애정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정녕 뜻깊은 자료이다.

이 시집은 계획된 편집의도나 일정한 이념적 지향아래 묶여진 選集보다는 관례적으로 출판되는 정기간행물에 가까운 성격과 체재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수록된 시들은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오늘날의 東國詩가 처한 내부적 상황을 반영함으로써 자기성찰에 긴요한 몇가지 단서들을 제공해 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목적은 앞으로 기대되는 진지한 자기성찰을 위해서 그 몇가지 단서들이 함축하는 意味網을 간략하게 검토하려는데 있다.

외관상의 다양한 면모에도 불구하고, 東國詩의 전반적인 성격은 〈抒情主義〉라고 일컫어질 수 있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東國詩集·15」에 수록된시의 절반 이상이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이러한 경향을 띠고 있다고 보여진다. 자연 속의 사물과 인간, 농촌·전원에서의 삶, 일상생활의 관조적 측면 등을 주요한 제재 및 소재로 취하면서, 특정한 사회적 관계나 역사적인 차원이 투영되어 있지 않은 일반화된 삶의 담당자를 作中話者로 내세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계 사이의 보편적인 문제들을을 겨냥 노래하되, 감수성의 섬세함과 언어구사의 숙련도를 시적 가치의 척도로서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시적 경향을 가리켜서 서정주의라고 한다면, 東國詩는 바로 그것의 충실한 대변자이다.

시집을 통독하노라면 우리는 三國遺事와 山村暮図의 공간에서부터 善男善女의 순결한 마음에이르는 서정주의의 광활한 영토를 만난다. 따지고 보면 서정주의는 東國詩의 두드러진 경향이기에 앞서서 가장 오랫동안 우리의 의식과 감성을 넓고 깊게 침식했던 〈시적 표준〉 혹은 〈시적인 것〉에 대한 권위있는 표준이었다. 지금도 문학교육의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시의 모범에 관한 묵계도 기실은 여기에 기초를 두고있다.

그도 그럴것이 〈서정주의의 형성과 전개에 이바지한 시인들은 다름 아닌 徐廷柱·柳致環·辛夕汀·朴木月·趙芝薰·朴斗鎭등을 포함한 한국 현대시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은 서정주의의 내용을 확고한 명제로 제시한 바도 없었고 이들의 시적 업적이 그 단순한 도식 안에 한정될 만큼 비좁은것이 아님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들의 시가 널리 읽혀지고 많은 추종자들에 의해서 變奏되는 가운데 하나의 시적 표준으로서 서정주의가 완강하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사실이다.

그러고 보면 해방 이후 한동안 시의 창조와 수용에 있어서 남다른 활기와 성과를 누렸던 東國大가 배출한 시인들의 작품경향이 서정주의에 크게 빚지고 있는 현상은 퍽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일부 詩들은 새로운 전통마련에 力點

수록된 詩 절반이상이 抒情主義 성격

그런데 문제는 서정주의의 소박한 실천이 이제는 더이상 우리시대의 문학적 성취와 同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것은 60년대 이후에 전면으로 부각된 모더니즘의 意識化와 현실참여시에 의하여 시적 표준으로서의 공인된 권위를 이미 의심받았다.

거칠게 말해서 모더니즘은 경험의 편벽된 선택과 그것을 질서화하는 방식의 상투성 등을, 참여시는 일반화된 삶의 보편적 관점에 관련된 현실성의 상실등을 그 나름대로의 시각에서 각각 논박함으로써 서정주의를 준열한 비판의 표적으로 삼았던것이다. 그것은 경험적 현실에 내재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항상 새롭고 투명하게 포착해야 할 시를 퇴영적인 멋과 정취의 온상으로 타락시키는 기만적 신념의 다른 명정으로 지목되기에 이르렀다.

모더니즘과 현실 참여시의 집요한 문제제기가, 경박한 前衛論者들의 자기변호의 수준을 넘어선, 우리의 문학적 상황을 에워싼 필연적인 논리의 한 표현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상기할때 우직스런 抒情主義가 現今의 詩의 바람직한 방향을 보장하기에는 실로 무력하다는 관점은 지극히 타당해 보인다.

마땅히 요청되는 태도는 창조적인 응전력이 의심스러워진 과거의 시적 표준을 고집하는 안이한 행위가 아니라 이 시대의 새로운 문학적 모색이 제기하는 온갖 물음과 정직하게 맞싸우는 일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시적인 것〉에 관한 낡은 규약을 과감하게 해체하고, 모든 예술창조의 영원한 원천인 경험적 현실에로의 복귀 혹은 〈사실의 사실성〉에대한 깨달음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시적 틀을 구축하려는 노력에의 동참을 가리킨다. 이 글에서 그것은 일차적으로 抒情主義의 비판적 극복을 의미한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東國詩集·15」에는 그러한 관점에서 조명될수 있는 시적 작업의 결과들이 나타나 있다. 적지 않은 보기 가운데 특히 주목에 값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朴堤千 洪申善 김정웅등의 시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세시인은 공통점보다는 相異함이 더 많은 시세계를 각각 형성해왔고 그들 자신이 서정주의가 야기하는 문제들을 얼마나 분명하게 의식했었는지는 지금의 필자로서는 자세히 알 길이없으나, 만일 서정주의의 융성과 극복이라는 단일한 맥락안에서 東國詩의 문학적 지향성을 집약하고자 한다면 이들의 작업은 그 극복의 출중한 표상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같다. 그러면 이들 세 시인에게 있어서 서정주의의 비판적 극복은 어떤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이글을 마무리하기로 하겠다.

朴堤千의 시들은 원숙한 抒情主義의 산물로 이해하는 관점은 크게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열거한抒情主義의 제반 요소들을 그의 기존 시편속에서 찾아내기란 그렇게 어려운일이 아닐뿐더러 그의 빛나는 시적 재능은 그러한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원용할줄 아는 역량과 결코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한갓 抒情主義의충성스런 실천자에 머물지않는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있다. 그의훌륭한 시들은 한국 현대시의 역사에 점철된 갖가지 否定과 生成의 논리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음이있는 넉넉한 포괄성을 지니고있다.

첫시집 『莊子詩』부터가 모더니즘이 신봉하는 이념과 기술의투철한 훈련이 없이는 쓰여질수없는 시구로 가득차있는 것이다. 그는 서정주의를 폭넓게 껴안으면서 뛰어넘은 드물게 보는시인의 한사람임에 틀림이 없다고판단되는데 특히 최근들어 그가행하고있는 노력은 그러한 판단에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주고있다. 최근의 노력이란 『동국시집15』에 수록된 「玆山」을 포함한 일련의 시들, 즉 金時習·허균·金炳淵·임제등 역사적 인물의 정신세계를 천착한 연작시제작을 말한다.

이 시들은 生觀 또는 정신의 紀律을 생활의 수사학으로서가아니라 바로 그것 자체로서 직면하는 힘든 과제를 떠맡음으로써 삶의 근본주의적인 통찰에로의진전가능성을 암시함으로써 서정주의의 좁고 메마른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

洪申善의 시에 있어서 서정주의와의 관련성은 朴堤千의 경우와는 달리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는것은 시집「겨울섬」이후의 시편들은 東國詩의 관습적인 언어에 친숙해 있는 독자들에게는 매우 곤혹스러움을 정도이다.

『東國詩集·15』에 실린 「履歷書를 쓰십시다-超某列伝」은 抒情主義者를 사이에서는 금기로 되어있는 추상적인 진술로 짜여져있거니와, 이것은 『겨울섬』과 근년의 작품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현상이다. 그는 동일한 의미를환기하는 비유나 상징의 중첩과系列化에 주로 의존하는 종래의진술방식을 가능한한 배제하고, 시인 자신의 내면적 情況과 외부의 객관적 事象 사이의 滲透関係를 민활한 지적 분석과 조작을 통하여 고착시키는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1968년, 옷 벗고 비굴 소집, 소집 벗고 민방위로 시절 갈아입어. /1977년, 사론胎, 시린 生 거듭 시리고줄여 입을수록 말틀이 아름다운때 능화관제로 꽉꽉 각자 意見 단을 때〉에서처럼 그의 추상적인 진술은 시인의 내부를 은밀하게 屈折시켜서 드러낸다. 洪申善의 이와 같은, 최근에 발표된 「이름 팝니다」(1981)나 「어떤 가야산」(1982)등이 일종의 주였듯이, 일상적인 감각과 사고의 지평 속에 갇혀 있는 삶의 여러 정황들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성공적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훼손되어 버린 진정한가치에의 열망과 억압된 욕망의실체에 대한 이 시대의 가장 선명한 표현들을 만난다.

시집 『배우일지』에 수록된 몇편의 초기시들은, 김정웅의 시인으로서의 출발이 抒情主義의 세례에서 그다지 자유롭지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작품에 따라서는 다소의 편차는 있지만 그 시들은 경험의 내용을 선별하는 원근법에 있어서나 선별된 경험을 의미화하는 경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抒情主義的 발상에 힘입고 있다. 그러나 문학적 경륜이 늘어갈수록 그러한 양상은 점점 文面에서 사라져 가며 지난 3~4년 동안에 쓰여진 시편들은 그가 마침내 抒情主義의 탁월한 지양을 반증하는 시적 틀의 정립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그 시적 틀은 『東國詩集·15』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다시 가을에」는 전체적으로 보아서 뚜렷한 서사적 골격이나 극적인 구도를 갖고 있지 않다. 우리가 이 작품에서 읽을수 있는 것은 하나의 심리적 상황에 대응하는 암시적인 독백과 시인 외부의 景觀에 대한 묘사 그리고 그것들을 간의 엷크러짐과 맞물림이다. 「俳優日誌」연작을 비롯한 그의 공들인 시편들에 서려있었던, 생활세계의 의미를 그 직접성과 구체성에서 거머쥐려는 정열은 일단 배경으로 물러나 있지만, 이 시는 그 무엇보다도 세계를 향하여 열려있는 사람의 감정과 감각과의지를 경험적 연관 안에서 해부함으로써 얻어지는 지적 명정성의 공간으로 높이 평가되어야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깊은 울림을 지닌 표현은 그러한 지적 명정성이 없는 곳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흔들어도 더 흔들릴 것 없는
빈 들판 바람이 몰린다
한 곁에서 한 곁으로
바람 제일 많이 몰리는곳으로
다시 가서 될 수 있을까
더 큰 바람으로 날 수있을까

黃鍾淵 〈文理大 국문과〉

四柱推命學의 과학성

Ⅰ、머릿말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미래에 관심을 가진다. 현재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또 살아왔을망정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至大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취직, 시험, 결혼, 이사등 인생의 중대한 문제에 접할 때면 그 運을 알아보려고 하며 이러한 운명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결혼을 할때면 宮合을 보는 것 같다.

西洋에서는 「運命아 비켜라, 내가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들은 모든 人間事를 인간의 理性, 科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西歐的 사고방식으로 운명학을 輕視하는 것 같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生死는 有命이요, 富貴는 在天이다」라는 말이 나타내주듯이 運命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運命學은 西洋에서는 별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占星術이 발달되었고 동양에서는 六十甲子를 기준으로 하는 干支術이 발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부터 中國과 문물교류가 빈번한 것으로 미루어봐서 일찍 流入되어 中國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았으리라 추측된다.

이렇게 발달되어 東洋文化圈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運命學이 아시아의 近代化 過程에서 급격히 流入된 西洋文物과 思考方式에 의해 科學的 根據가 전혀없는 迷信이라하여 공격을 받고 衰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랜 歷史를 통하여 民衆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運命學은 社會로부터 疏外된 그늘진 곳에서 綿綿히 줄기를 이어 그學問的 硏究를 계속 하고 있다.

筆者는 東洋의 運命學 특히 四柱推命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四柱推命學의 科學性에 대하여 見解를 叙述해 보고자 한다.

Ⅱ、四柱推命學의意義

동양에서 사람의 운명을 예지하는방술에는 상학 해명 오성술 기학 사주추명학등 여러가지가 있다. 이중에서 특히 사주추명학이라 함은 사람이 태어난 年月日時의 천지를 기초로하여 그 사람의 운명을 예지하는 방술이다. 다시말해서 그사람이 출생한때의 사주팔자를 밝혀 이들의 음양오행의 조화를 따져 그운명을 판단하고 그사람의 인생경로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러한 四柱推命學은 이미 3천년전부터 古代中國에서 행하여졌다고 현존하는 기록에도 남아 있으며 오늘날 보는 바와같은 四柱推命學은 3천년이상의 장구한 세월에 걸쳐 諸聖賢의 연구에 의하여 엮어진 결과의 집적이라고 할수있겠다.

우리가 四柱推命學을 접할때 주의해야할 점은 四柱에 나타난 운명은 절대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誘引的 作用을 함에 그친다는것이다. 만약에 四柱에 나타난 운명이 확실히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우리 人間은 운명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도없고 자기의 운명이 어떠한 것인지 알 필요도 없을 것이다.

생각컨대 四柱推命學에 나타난 운명이 절대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立身出世의 운이 나온 사람은 그때가 올때까지 낮잠을 즐기며 기다려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며 요절한다는 運이 나온 사람은 아무리 치료를 해도 결국 죽는다는 결론이 나와 절대적 決定論은 찬성할 수가 없다.

따라서 四柱推命學은 그 사람에게 誘引的 작용을 하는 운명을 파악함으로써 吉運에는 자기의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凶運에는 근신을 하고 그에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자 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Ⅲ、四柱推命學의原理

대포를 발사할때 앞으로 미는 추진력과 방향 그리고 공기의 저항과 風速등의 諸條件을 알면 포탄이 날아가는 궤도와 落着點을 알수 있다. 이와 비슷한 원리로써 四柱推命學도 태어난 때의 조건과 환경의 조건을 알면 그 인생의 과정을 파악할수 있다고 본다.

이론적 體系性은 높이 평가돼야

四柱推命學에서는 사람의 生年, 生月, 生日및 生時의 干支가 상호작용하여 그 운명을 좌우하는 것으로 본다. 각생년월일시의 간지는 두字로 되어 있으므로 八字가 된다. 사람의 운명을 四柱八字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起因한다.

여기에서 干支는 天干과 地支 즉 十干과 十二支를 말하는바, 十干은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이고, 十二支는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이다. 이중 陽干은 甲丙戊庚壬이고 陰干은 乙丁己辛癸이다. 그리고 陽支는 子寅辰午申戌이고 陰支는 丑卯巳未酉亥이다. 이와같은 양간과 양지, 음간과 음지를 순차로 조합하면 甲子, 乙丑, 丙寅 순으로 시작하여 壬戌, 癸亥로 끝나는 소위 「六十甲子」가 된다. 따라서 어떠한사람의 生年 生月 生日및 生時도 이 六十종의 어느것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정하여진 그 사람의 四柱八字를 태어난 때의 조건으로 보고 大運 年運 月運및 日辰의 干支를 환경의 조건으로 보고 각 조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삶의 과정을 예측하는 것이다. 물론 前者의 조건이 훨씬 중요함은 再言할 여지가 없겠다.

四柱八字의 相互作用은 太極에서 분리된 陰陽과 다시 여기에서 導出된 五行의 生化剋制를 말한다. 五行이란 木, 火, 土, 金, 水의 다섯가지를 말하는데 우리 東洋의 전통적 사상은 우주의 森羅萬象이 五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믿어왔으며, 世上事 어느것이나 이 五行의 작용이라고 생각해왔다. 四柱推命學은 十干과 十二支를 陰과 陽및 五行으로 분류하여 그 상호관계에 의하여 사람의 운명을 予知하는 것이다.

干支의 수학적 계산에 의한 결과, 적중률 높아

우주 원리인 五行의 독특한 性質에 運命결정

그러므로 四柱推命學의 사상적 기초는 五行에 있는 것이다. 각각의 五行에는 독특한 성질이있고 五行間에는 그 性質이 서로 親和, 相生의 관계에 있는 것과 背反, 相剋되는 것이 있다. 前者를 「相生」이라하고 後者를 「相剋」이라 하는 바 相生에는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水生木이 있고 相剋에는 木剋土, 土剋水, 水剋火, 火剋金, 金剋木이 있다. 각각의 五行에 속하는 十干과 十二支를 알아보면 木에는 甲乙干과 寅卯支, 火에는 丙丁干과 巳午支, 土에는 戊己干과 丑辰未戌支, 金에는 庚辛干과 申酉支, 水에는 壬癸干과 子亥支가 해당한다. 이에 따라 四柱推命學은 生年月日時의 干支 여덟字를 찾아 이들이 나타내는 五行을 밝힌다음 이 五行의 生化剋制를 살펴 그 사람의 運命이 암시하는 吉凶禍福을 判斷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미래에대해 많은호기심을 가지고있다. 東洋學的인 입장에서볼때 개인의 미래를알아보는 방법의한가지인 四柱推命學도 관심을 가진많은 사람들에의해 연구되고있다.

Ⅳ、四柱推命學의 科學性

近代科學의 발달로 인하여 森羅萬象의 모든 현상을 그 원인과 결과를 科學的 방법에 의하여 究明하고 그 원인과 결과 간의 필연적 관련성을 五官의 작용에 의하여 인식할 수 없을때는 이를 전부 미신으로 간주하여 배척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으로 되었다.

이에 대하여 가장 数理的이고 科學性을 요구하는 数學과 物理學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数學은 定義로부터 시작되는 학문이라고 한다. 즉 하나는 1, 둘은 2, 셋은 3이라 정의하고 이들의 加減乘除를 약속하여 놓고 이를 기초로 미분·적분 그리고 그 이상의 수식을 계산한다. 물리학의 경우도 약속된 기호들을 하여 복잡한 원자의 구조까지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四柱推命學도 「六十甲子」를 정하고 그를 각각의 五行을 정의한다음 이들의 生化剋制를 살펴서 사람의 운명을 판단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수학이나 물리학은 결증을 할수있고 원인과 결과간의 필연성을 五官의 작용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四柱推命學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四柱推命學에 깊은이해와 풍부한 경험을가진 운명가들의 운명예지가 거의 완벽에 가깝게 적중하고 있음은 엄연한 사실로써 존재하고있다.

그리고 과학의 비약적 발달에 의하여 우주구성의 틀인 공간과 시간에 관한 상대성원리와 우주의 내실인 이른바 素粒子의 역학인 양자역학이 밝혀져 확정설로부터 불확정설로 전진함에 따라 세계의 思潮는 필연성과 우연성의 문제를 깊이 따지게 되었다.

최근 科學界의 通說이 되다시피한 不確定性의 원리는 「現在의 가능한 觀測手段으로는 세상 모든 것이 우연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어떠한 법칙 및 원리도 그것은 항상 確率的으로만 진실로 표현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절대적 필연성을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것이다.

이 원리에 의하면 宇宙의 森羅萬象은 과학적 개념에 있어서 우연성이 지배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사실 우리 인간만은 우연에 지배되고 있는 것은 드물다.

인간은 그 시작 즉 출생부터가 우연이다. 많고 많은 生物중 지구상의 人間으로 태어나고 위로는 고관대작의 만아들로부터 밑으로는 죽한술 얻어먹기 힘든 빈천한 집 막내둥이로 태어나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洋医學도 경탄한다고 하는 漢医學이 四柱推命學과 같은 원리를 기초로 성립하고 발전되어 왔음을 보아 四柱推命學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전통적 한의학을 부정하는 결과가 될것이다.

出生한 年月日時의 干支와 人間의 運命間에 因果關係가 있느냐 하는 것은 近代科學的 개념으로는 實証하지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엄연히 사실로써 존재하는데도 科學이 규명하지못한 불가사의한 미스테리가 있음을 상기하여야할것이다. 과학이 초고도로 발달된 어느 장래에 인간의 出生年月日時의 干支와 그 운명간에 관련성이 있다는것을 實証해줄런지도 알수없는 일이다.

하여튼 우연과 神秘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된 現代科學의 입장에서는 必然性을 초월해서 우연과 신비에 도전하는 인간의 노력을 輕蔑하지는 못한 것이며, 경험과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科學的으로 원인과 결과간의 필연성을 얻어 성립, 발전된 四柱推命學을 關聯性을 立証하지 못한다고 무조건 迷信이라고 단정함은 과거 3천년 동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歷史的 事實과 경험과학, 통계과학의 否認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라할 것이다.

Ⅴ、맺음말

筆者가 四柱推命學에 대한 연구를거듭할수록 그 이론 체계성은 筆者를驚歎하고 있으며 실제로 적용되는 事例는 信憑性을 더욱 강하게하고있다. 이상과같은 필자의 견해에 대하여 부정적태도를 취하는 분들은 이해론이나필자가 알지못한 이론을 근거로 論駁할수있을 것이다. 그러면 역시 四柱推命學에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가진 분들이 그에 대하여 반박할수 있으리라 믿는다.

筆者는 四柱推命學에 대하여 初學者이며 知識과 經驗의 限界도 있고하여 本稿의 意図를 西歐的學問에만 心酔된 知性人들의 注意와 關心을 四柱推命學에 환기시키고자 함에 그친다.

全 用 信 〈法政大 法學科〉

鹿野苑

「프로쿠로스테스」의 침대

▲프로쿠루스테스(Prokrustes)는 그리이스傳說에 나오는 괴물로서 그는 손님을 쇠침대에 눕혀 그들의 키가 길면 자르고 짧으면 억지로 잡아 늘려서 죽였다고 한다. 이 傳說은 융통성없는 규칙이나 形式을 시사해 주는것으로서 人口가 기하학적으로 폭증하여 복잡다단하여진 現代社會를 살아가고있는 우리들에게 여러가지의 意味를 부여하고 있다.

▲古代의 人間社會에 있어서는 現代와 같이 사람들의 行動을 규제하는 많은 규칙이 없었고 필요도 없었으나 現代에 와서는 이러한 규제가 없어서는 안될 만큼이나 모든 人間들이 타율적으로 되어가고 있으며, 또한 우리들이 形成한 社會構造도 그렇게 되도록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人間들은 이제 규제받는 生活에 익숙하게 되었고 自身이 어떠한 테두리안에 갇혀있다는 것조차도 感知하지 못하는 無感覺한 상태에까지 이르게된 것이다. 실로 우리의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 經濟的인 面, 政治的인 面, 초등교육에서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의 교육적인 面등 모든 전반적인 生活에 있어서 표준적인 틀이 存在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며, 또한 없어서도 안될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問題는 우리의 生活에 깊숙히 관계하는 이러한 규칙들이 과연 옳은것인가 하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에게는 現在의 社會組織이 부여하는 하나의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능동적인 行動」의 발휘라고 말할수 있으며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生活을 규제하고 있는 많은 규칙들중에서 우리가 유익한 生活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는 순순히 따라야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규칙들을 올바른 方向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말을 行動으로 직접 옮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며 그렇게 되기도 힘든 일이다. 그렇다면 理想的인 규율이 存在하기란 전혀 불가능한 것인가? 그런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人間을 구속하는 규율이 存在하는 理由는 우리의 생활습관에서 유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事實은 앞으로의 우리 生活인 것이다. 지나치게 타율적으로 되어버린 社會에서는 규율이 存在할수 밖에 없다. 자신의 개성을 십분 발휘하면서 공동사회의 특징을 감안하며 生活한다면 어떠한 종류의 규율이 存在한다고해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들은 각자가 속해있는 社會에서 여러가지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규칙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여러종류의 個性을 가지고 있는 人間들이 살고 있는 現代社會에 있어서 그들의 개성을 충분히 반영시킬수 있는 규칙이 存在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규칙의 테두리에 억지로 개개인의 특질을 묶어 버리려는 「프로쿠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은 오류는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光〉

•REVISED EDITION•
for the Advanced Learners
VOCABULARY 22000
◎Harold Levine원저
時事英語學院 金亨燮 編著
◎시사영어학원 : 김형섭·오창근
◎코리아헤럴드 : 양승우
◎YMCA : 박태호·이동욱
4×6배판399page ₩5,000
완전해설 개정신판
동시판매
•REVISED EDITION•
for the College-Bound Student
VOCABULARY22000 속편
단1~2개월에 단어를 완전정복
●문맥, 중심개념, 어원을통한가장 독창적이고 능률적인 방법!
●중심개념을 바탕으로 동의어 반의어까지 광범위하게 습득시키는 최신의 학습방법.
●어간·접두어·접미어 등 어원을 알기쉽게 전개시켜 유추를 통한 완전 영어정복.
도서출판 三志社 ☎254-4560
(총판)한국출판협동조합 ☎715-4191
SAMJI BOOKS

BEST WORD POWER
한양대학교·구미외국어학원 담당강사·이안길 저
단어연구 완성의 총결산
단어의 이해와 암기를 돕는 명쾌한 어원설명과 응용력 배양.
어의에 따라 곁들인 다각적인 예문으로 WORD POWER와 기본실력양성을 동시에 달성.
TOEFL·취업시험·해외연수·대입등의 필수단어 엄선과 이를 바탕으로한 연습문제 수록.
중요 숙어·관용구 1500의 정복과 독해력·영문해석·문법의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록.
도서출판 三志社 254-4560
(총판)한국출판협동조합 325-4191
SAMJI BOOKS

논문과 리포트
◎82학년도 大學敎養科目改編
金宗澤 著
教養 大學英語
◎大學生活의 必須指針書
白南九 著
全國有名書店販賣中!
T.765-2544
文化出版社

張永學 著
당신도 수출왕이 될 수 있다
783-1541~5
대학문화사

○구주지역은 국립대학이므로 입학·등록금 거의 없음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완벽한 정보 및 서류 확보
○구주지역 유학 전문 기관임.
○어학 초보자 가능(현지대학 어학기관 수료가)
○자격 : ① 4년제대학 2년이상 수료자
② 예능계는 학력 제한 없음.
③ 미국은 TOEFL 550점 이상자에 한함.
유럽 유학 미국
서대문 로터리 우성빌딩 406호
서대문사서함 113 TEL. 724-7054
(야) 590-3992
삼우유학

MBC-TV묘기 대행진에 소개된
하재풍 저
우리 속독법 저자직강
4주 Course 속독훈련문의
사랑방속독연구원
장소 : 광화문 상업은행 옆
전화 : 722-5355

영어 일어 회화 테이프를 빌려드림!
대여방법 회원가입후 월 5,000원만 내시면 75개까지 마음대로 빌려드림.
보유테이프 국내 유명 음성교재 20여종 (정철, 민병철, TOEFL, Drama등…)
대여료 영구회원제 (회원가입비5,000원, 월회비5,000원)
태평도서 776-6118
(남대문 새로나 백화점 건너편)

동시통역
수강생모집
⊙모집학과 : 영어·중국어·일어과
⊙교육기관 : 12terms (주·야) 1일3시간수업
⊙모집방법 : 해당학과 테스트로 반편성
⊙특 전 : 수료증·취직추천·해외유학·장학금
교재10권및 Tape30본 무료제공
(시중가20만원상당)
⊙문 의 : 교육부 556-5117
교무과 566-1536
AFLI 亞細亞外國語敎育院 Asia Foreign Language Institute
영동시장 사거리·터미널편 네째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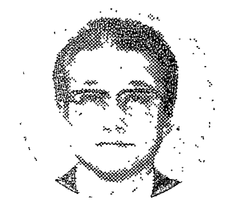
학생여러분!
학교 학과 문제로 고민 하십니까?
1개월 이내 미국유명 주립대학에
Toefl 없이 정식입학 입학시켜 드리겠읍니다.
독일 3개월, 일본 4개월 이내 정식 입학
(주)한국해외유학원 INSTITUTE FOR FOREIGN STUDY
C.P.O.BOX.5751. TEL.725-2223·3336·0700·3300
서울시종로구관훈동198-1 홍익B·D 8층(종로예식장 후문옆)

긴장하는 世界…

석유시장을 사이에 두고 일어나고 있는 중동문제, 소련의 아프간침공등등 이러한 회오리는 그칠줄 모르고 있다.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 미·소 전력의 불균형등을 미루어 볼 때 곳곳의 사태는 깊은 수렁에서 쉽게 벗어나질 못할것같다. 本紙에서는 여러곳에서의 대립을 크게 중남미지역, 중동지역, 그리고 소련의 군비현황등을 중심으로 특집을 꾸며보았다. <편집자註>

國際政治的 시각에서 본 中南美事態

사태원인은 내부의 사회개혁 의지에도
폭력난무로 每月 5백명以上 인명손상
강대국협상통한 긴장완화 방안 모색 바람직



〈法政大교수·국제정치〉 金仁鴻

I、「카리브」海의 붉은 波高

국제정치무대에서 한동안 조용한 지역으로 일컬어져 왔던 中南美가 최근 들어 급속하게 파고드는 共産세력의 침투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전통적으로밀접한 利害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은 턱밑의 불길도「먼로·독트린」에 대한 위협」「제2의 베트남사태」「도미노이론의 시험대」라는 위협적 표현을 낳을만큼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59년「쿠바」가 공산화되었을때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이곳을거점으로 하여 中南美지역에 공산혁명수출이 진행될 것을 염려하여 왔던 터였다. 바로 그러한우려가 79년「니카라과」에서「산디니스타」정부를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이 또「엘살바도르」「과테말라」등 인접지역으로 확산되어 이른바「도미노이론」의실현을 보여주고 있는 형편이다.

中南美지역에서 공산주의사상이 싹튼것은 상당히 오래되나 활동이 시작된 것은 1920년대부터였다. 그러나 이들 공산세력은 軍部勢力의 등장과 과두지배세력의 형태를 유지해 옴으로써 박해의 대상이 되거나 불법화되기 일쑤여서 정권을 장악할만큼 민중의 지지를 받을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지는 못하였던것이다. 유일한 예외는 정치의식이 비교적 높은「칠레」에서 70년 합법적 선거절차를 통하여 집권한「아옌데」좌익연정이 있었지만 경제정책의 철저한 실패로 사상 유례없는 인플레를 기록, 결국 군부의 정치적 개입을 초래케 하여 종말을 고하였다. 이로써 중남미지역의 민중에게는 공산주의가 문제해결의 열쇠가되지 못함을 입증시켜 주게 되었던 것이다.

우선 中美 카리브해역의 공산주의 침투현황을 살펴보면 40여년간의「소모사」집안의 정치체제를 무너뜨리고 親맑스주의「산디니스타」정권을 수립한 니카라과를 시발로 하여 지금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는「엘살바도르」그리고 극심한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위기속에 처해 있는「과테말라」「혼두라스」「코스타리카」등 중미5개국이 좌파의 폭동과 파괴의 위험 속에 있다. 이밖에「카리브」해역의「아이티」「도미니카」「자마이카」「트리니다드 토바코」「그래나다」등 거의 전역에서 산발적이나마 집요한 좌익게릴라의 도전을 계속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중미지역 공산세력의 거점이 된「니카라과」는 7만이라는 중미 최대의 병력과 소련제무기로「엘살바도르」와「과테말라」등 이 지역 반정게릴라를 지원하면서 극심한 폭력을 낳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엘살바도르」에 경제원조를 강화하고, 무기공급을 더욱 원활히 하는가하면「엘살바도르」정부군의 미국전지훈련을 확대하면서 이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쿠바」와「니카라과」가「엘살바도르」에 용인할 수 없는 행동(군사개입)을 계속할 경우 두나라에 대한 봉쇄나 해·공군작전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단호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와같이 중미지역에서는 날이 갈수록 공산게릴라의 활동은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월평균 5백명이상의 인명이 살상되는 폭력이 난무하고 막대한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중미사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가.「미국의 後園」또는「미국의 앞마당」이라고까지 불리는 중미에서 이같이 급격한 공산화의 불길이 번진 이유는 무엇인가.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는 중남미국가들의 南北문제로서는 해석할 수 없는 것 같다. 현재의 사태는 도리어 동서관계의 이해대립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에서 중미위기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I、表出된 危機要因

中南美지역의 위기요인은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내부적 요인이요 다른 하나는 외부적 요인이다. 물론 이 대내외적 요인은 별개의 것이라기 보다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먼저 외적요인가운데 가장 큰 것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었다.「레이건」행정부로서는 중남미문제가「카터」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골치아픈 유산중의 하나였다.「니카라과」가「산디니스타」좌익세력의 손에 넘어간 것도「카터」재임중이었고, 현재 중남미에서「엘살바도르」「태풍의 눈」이 되고있는「엘살바도르」에 대한 좌익세력의 공세가 본격화된 것도「카터」의 임기가 끝날무렵이었다.

이와같이「카터」가 중남미정책에서 인권 외교를 앞세우므로써 미국과 중남미제국사이에 상당한 괴리감이 형성되었다.「카터」행정부는「니카라과」에 적대적인 외교정책을 수행하므로 반미감정을 고조 시켰고, 결국은 미국의 국익에 결정적인 손실을주는 국가로 화하게끔 만들었다. 또한,「카터」행정부는 중남미지역에서 소련과「쿠바」세력이 침투하는것을 저지하지 못함으로써 우호적이었던 많은 국가들이 반미국가나 적어도 중립적입장을 표명하는 국가들로 급선회하게하였다. 그결과 특히 제로·섬관계에 있는 미·소의 역학관계에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열세에 몰리게된 것이다.

이러한「카터」행정부의 외교정책은「니카라과」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현상을「아르헨티나」「칠레」「브라질」「우르과이」와 중미의「과테말라」「엘살바도르」등의 국가들에게 심각한 위기상황을 격게 만들었던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엘살바도르」의 경우「카터」행정부는 77년부터 미국이 무기원조를 중단하는 사태를 가져왔다.

「카터」행정부의 이와같은 무차별적 인권외교의 적용은 과거에 동맹관계에 있었던 우방과 멀어지고 따라서 미국의 정치세력이 약화되자 소련과「쿠바」는 그기회를 이용, 자기진영의 영향력을 혁명수출이란 형태로 확산시켜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쿠바」는 중남미지역에있어서 소련의 代父역할을 수행하면서 년간 약 8백만불의 원조를 받고 있는데 이는 소련의대외원조 총액의 4분지1에 해당하는 숫자로「베트남」에 이어두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내적요인인데 이것은중남미국가들이 안고 있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소수 엘리트계급과 민중간의 위화감인것이다.「라마」(Carlos M. Rama)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거의 중미 전역과「카리브」해안국은 아직까지도 신분제도가 존재하는 사회구조라고 규정하고 있다.「엘살바도르」의 경우 79년까지도 2%의 인구가 全土地의 60%를 소유하고, 20%의 인구가 국가수입의 80%를점하고 있는 극심한 富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과테말라에 있어서는 인구의 절반이상이 마야문명의 후예인 인디언 인구와 非인디언 간의 위화감이 사회적 불안정의 큰요소가 되어 왔다. 두나라 모두 커피나 설탕의 생산에 의존한 형편없는 경제체제로 성인의 3분지1 혹은 근 50%에 이르는 문맹율, 중남미권에서도 최하위에 머무는 국민소득으로 노동자, 농민층의 생활수준개선의 여지는 거의없는형편이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불균형을 개혁하겠다는 내부불만요인과 함께 좌파게릴라들은 민중들에게 정치적 선택을 강요하면서 힘에의한 돌파구를찾고있다.

어느 사회이건 사회적 유동성이 결여되고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 계층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때 가장 위험하게 등장될수 있는 요소는 계급의식에의한 투쟁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남미의 共産化를결정은 그 시작이 정치이념에 앞서 사회개혁적 요소를 포함한 것이었다고 할수 있을 것 같다.

이와같이 중남미제국은 국제적 국내적 제요인에 의하여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럼 혼미속에 있는 중남미국가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이해관계는 어떠한가 알아 보기로 한다.

◇美國과 소련, 무기공급루트화 되어 있는 쿠바. 이들의 관계가 정치문제화되어 나타나고있는 중남미지역은 다음번의 화약고라고 불릴만큼 심각한 국면에 처해있다. (사진은 엘살바도르반군이 양민을 무참히 학살한 장면)

Ⅱ、미국의 이해관계

「힘의 對蘇우위」를 내걸고 등장한「레이건」행정부는 중남미사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하는 외교정책의 시험을 치루고 있다. 중남미사태 가운데「레이건」행정부가 첫번째 정책결정을 해야됐던 나라가 바로「엘살바도르」였다.「레이건」행정부는 이 나라에「카터」시절의 5배나되는 2천5백만불의 군사원조와 군사고문단 55명 증원을 결정하였다.

「레이건」행정부가 섣불리 개입하면「제2의 베트남」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중남미지역에서 영향력회복에 전심전력하는 까닭은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미국의 세력권이었다는 감상적인 사실 이외에「헤이그」美國務長官의 말처럼 좌익세력의 배후에 소련과「쿠바」가도사리고 있고 이 지역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 이 지역에서「쿠바」와같은 또다른 共産정권이 수립된다면「파나마」운하,「멕시코」의유전,「카리브」海의 해상수송로가 끊겨져 미국의 숨통을 조이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해상통로의 요충인「파나마」운하를 장악하기위하여「콜롬비아」로 부터「파나마」를 독립시키고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여 80여년의 세월동안 막대한 이익을 추구해 오고있다. 오늘날 미국의 무역교역량의 거의 절반이상과 석유수입 3분지 2 이상이 그리고 전략금속물자의 절반이상이「멕시코」灣과「파나마」운하를 통과하고 있다. 뿐만아니라「멕시코」의 석유자원 또한 미국의 국익에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최근에는「멕시코」가「베네주엘라」의 석유매장량을 능가하는 油田을 발견하여「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석유매장국가로 부상하고 있다.「엘살바도르」나「과테말라」의 위기를 미국이 그야말로 발등의 불과 다름없이 보는 이유는 바로「멕시코」의 부유한 석유자원과「멕시코」만의「파나마」운하와「카리브」해상통로가 크게 위협을 받게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사실을 뒷받침이나 하듯 지난 2월24일 열렸던 美洲기구(OAS)회의에서「레이건」대통령은『중남미지역은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국가이익에 매우 중요한 전략지역』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어「카리브」海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략물자, 석유, 무역상품이 통과하는대동맥이라고 말한 바 있었다.

또한「레이건」대통령은 이 회의석상에서「카리브」海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①이 지역에 대해 3억5천만불의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②직물및 의류와 설탕을 제외한 對美수출품의 관세를철폐하고 ③미국기업들의 이 지역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稅制上의 혜택을 부여하는등의 것들을 제의하였다. 이러한 제의는미의회로 부터 가장 현실적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또 수혜대상국들로 부터 환영을 받았으나 일부에서는 군사적 개입의 명분을확보하기 위한「전초계획」이라는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어쨌던 그것에 대한 환영과 비난의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미국은 이지역에 좌경세력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아야할것이다.

미국 국무성이「엘살바도르」에서 입수한 각종문서와 정보를토대로 분석한 엘살바도르에서의 공산세력의 개입을 보면 이지역의 좌익게릴라에 대한 소련제무기는「쿠바」와「니카라과」를 통해공급되고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좌익게릴라의 무기지원이감소되어 전투능력이 별재되지않는다면 사실상 이지역의 평화유지는 상당하게 어려움에 처할것은 뻔한 노릇이고 점차 확산될것은 명백한 사실로 남게된다. 따라서 미국은「소련」과「쿠바」에게 경고를 보내는한편 협상을 통한 무기공급 제재방법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美」,국가 이익때문에 武力介入 불가피한 형편
「東·西利害대립」으로 이해돼야

이와같이 미국은 지정학적,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국가이익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중남미지역을 결코 포기할수 없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미국은 갈수록 번져만가는 좌익게릴라의 준동을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지역국가들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내부적 요인이 미국으로 하여금 더욱 많은 어려움을 던져주고있는 편이다.

Ⅲ、예측힘든 장래

과연 중미사태는 미국에게있어「제2의 월남전」의 신호탄이될 것인가. 예측하기 힘든 일에 속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현재까지 미국은 무력개입을 하지않고 경제, 군사원조로 사태를 수습할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소련과 당사국간의 국제적 협상이나 외교방식을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과정에서 나타난 예에서 볼수 있듯이 어느 경우에는 무력개입도 불사치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

미중앙정보국의 對「니카라과」공작활동을「레이건」대통령이 승인했다는 보도가있자 이것은 미국이 점진적으로 중미사태에 직접적인 국사개입을 하게 된지모른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하였다.

업저버들은「레이건」행정부가 그런 보도가 나가도록「의도적인누설」을 하여 내외의 반응을 저울질하면서 미국의 중미개입을 正當化하는 국내분위기 조성을 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행동반경은 중미 있어서의「멕시코」의 영향이 강대해짐에 따라 어느때 보다도 계약을 받고있다. 미국과「멕시코」는 약소국의 주권을 보호하는「칼보」독트린과「드라고」독트린의 신봉자로써 타국불간섭주의에 철저한 입장을 취하고있다. 81년6월「레이건」대통령과「뽀르띠요」「멕시코」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①중미에 대한 군사적인 원조는 가급적 지양되어야 하고 ②자국세력의 확장을 위해 어느 특정한 정권을 지렛대로 이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③모든 원조의 목적은 오로지 民生향상에 도움을줄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를 보았다.

이와같이「멕시코」는 미국의 중미사태에 대한 직접적 무력개입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더구나「뽀르띠오」대통령은 중미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쿠바」, 미국과「니카라과」「니카라과」와 그 주변국가간에 상호 불가침조약을 맺어야한다는 분쟁해결방식을 제기한바 있다.

이 분쟁해결방식은 사실상 많은 국가들에게 설득력있게 들리고 있다. 더우기 자유진영국가들의 여론, 미주기구회원국들의 입장 그리고 미국내의 여론등을 종합해볼때 직접적 군사개입은 현실적으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을 갖고 있다.

「쿠바」사태이후 20년만의 진통을 맞고있는 미국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중남미사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어떠한 형태이든 미국의 이익과 깊은 관련이있는중미사태를진정시키지않으면안된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미국이 부닥치고 있는 문제는 이 지역국가들의 뿌리깊은 불평등과 소수독재에 의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갈등인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하여 미국은 엄청난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 83회계연도에는 지금의 배에가까운 6억4천만불을 추가원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내부의 사회개혁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한다. 그 다음은 이 지역국가들에 대한「소련」「쿠바」등 공산세력의 좌익게릴라지원을 어떻게 막느냐하는 문제이다.

미국은 강력한 군사적 대응과 협상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나 혁명의 파급을 노리는 공산세력들은 여전히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충돌이나군비종강보다는 강대국간의 협상을통한 긴장완화방안을 모색하는것이 바람직한 것만은틀림없는사실이다.

왜냐하면 중미지역 국가들에게 있어 심각한 사태는 무고한 국민들이 이유없이 죽어간다는 비극적 사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던 폭력은 지양되어야 하므로 예측할수는 없지만 하루 빨리 중남미에 일고있는 불길이 消火되기를 바랄 뿐이다.

TEC 살림의 길잡이 대한전선

한손의 작은 스테레오……

대한전선 영메이트는, 거리나 야외등에서 즐길 수 있는 한손에 쏙 들어오는 아주 작은 스테레오 카세트입니다. (가로98m/m×세로132m/m)

●두 사람이 함께 들을 수 있는 2헤드폰잭●국내유일의 큐/리뷰장치●착용감이 전혀 없는 초미니헤드폰●왼쪽·오른쪽의 슬라이드식 볼륨스위치●헤드폰을 벗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토크라인●1.5V건전지 3개로 10시간사용

OLEX 영·메이트 TP-3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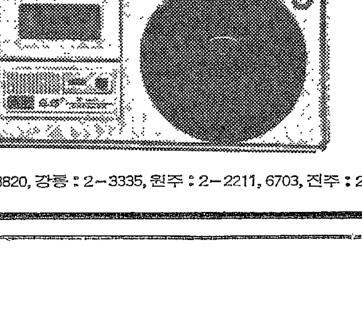
표준소비자가:₩64,300 (헤드폰(별매):₩7,000)

새로운 출발— 다양한 모델의 대한전선 오렉스로 축하하세요!

TC-7000W
●2-WAY 4SPEAKER시스템
●4W+4W(8W)의 고출력 스테레오
●음의 확장가능
●원터치녹음 큐/리뷰
표준소비자가:₩165,800

TC-5000W
●2.5W+2.5W의 스테레오
●라우드네스 스위치
●크롬/노르말 변환스위치
●원터치·큐/리뷰 장치
표준소비자가:₩116,200

TC-8080W
●큐/리뷰장치
●원터치 녹음방식
●다양한 8가지의 리듬박스
●실용최대출력 5W
●스튜디오 믹서장치
●전기기타 입력잭부착
표준소비자가:₩95,800



TC-6065W
●큐/리뷰장치
●6.5인치 우퍼스피커
●1.5인치 고음용트위터 스피커
●실용출력 4W
●최고급 콘덴서마이크 내장
표준소비자가:₩72,300

본사: 855-5111~5120, 소비자보호센터: 서울동부: 568-8049, 8307, 서울서부: 322-0397, 2093, 8705, 7203, 서울중부: 269-2884~5. 269-4745, 부산: 45-0947~8, 대구: 33-9005, 대전: 2-6622, 9025, 광주: 56-3665~6, 수원: 6-0903, 춘천: 2-2732, 전주: 4-3532, 3820, 강릉: 2-3335, 원주: 2-2211, 6703, 진주: 2-4229, 4235, 마산: 6-1857~8, 울산: 3-6004, 홍성: 2636, 안동: 2-2275, 7939, 제주: 2-3188

최근軍事力 계속 증가추세

—최근 5년간 자료를 中心으로

一、소련軍事力의 팽창實態

오늘날 소련군의 兵力數는 4백80만 이상에 달하고 있다고 지난해 9월29일 공포한 美國防省 特別報告書에서 밝히고있다. 지난 25년동안 계속하여 軍事力을 증강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군사력확장은 늦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報告書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①소련地上軍은 1백80개이상의 정예사단으로 늘어났다. 소련영내, 몽고, 東유럽, 아프가니스탄등에서 주둔하고 있으며, 특히 有事時에는 유럽의 중심지역에서 전개될 작전능력을 保有하고있다.

②소련군은 5萬臺의 최신예 탱크와 2만대의 포대를 실전 배치완료했다. 즉 T-64형, T-72형탱크를 예하사단에 배치했으며, 자동 122㎜및 152㎜포 多發로케트발사기 등을 각 보병부대에 새로 배치했다.

③5천2백대의 Mi-8형, Mi-24형 헬기가 유사시에 소련군의 지상작전을 지원하도록 훈련되고 있다.

④3천5백대이상의 전폭기및 전투기들이 동유럽에만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 8년동안 매년 1천대 이상의 전투기를 생산했던 것으로 추산된다.

⑤核탄두면에서 볼 때 유동식 핵탄두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것은 2백50여개의 SS-20 중거리탄도탄발사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의 SS-20미사일에는 각 3개의 핵탄두가 실려있다.

⑥소련은 大陸間탄도탄(ICBM)과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의 현대화를 서두르고 있다. 이것을 세분해 보면 1천3백98개의 ICBM 발사기에 7천여개의 핵탄두, 9백50개의 SLBM과 1백56개의 장거리 폭격기를 포함하고 있다.

⑦소련 防空部隊는 1천개의 고정된 미사일 발사기에 1만개의 地對空미사일을 소련領內에 배치해 놓았다.

⑧소련은 1백35개의 주요군수공장이 무리한 가동을 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80년에만 1백50개이상 새로운 형태의 兵器를 소련군에게 제공하고 있다.

⑨소련군은 아프가니스탄에 8만5천명 이상을 파견하고 있으며 亞·阿및 中南美지역에 代理戰을 획책하고있다.

이와같이 소련은 군사팽창정책, 군장비현대화계획, 범세계적인 權力追求정책을 명백히 指向해 나가고 있다.

二、軍事戰略的 자원배분

소련은 군사력증강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과거 25년동안 國防費支出을 해마다 GNP의 12~14%를 증대시켜 왔다. 이것을 美달러로 평가해 보면 79년도 미국의 그것의 70%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소련의 군수산업은 지난 20~25년동안 꾸준히 성장하여 무기를 최종 완정제품으로 하는 종합군수공장으로 중요한 것만 1백35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하청회사만도 3천5백만개를 상회하고 있다.

「세베로드빈스크」에 海軍조선소를 건축한것은 소련의 군수시설 성장을 단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다. 지난 10년동안 7종류의 잠수함이 건조될 정도로 이 조선소는 5개 잠수함 건조공장 중 하나로서 그 위용을 떨치고있다. 이와함께 소련의 陸軍부분은 탱크제조에 있어 미국보다 5배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만보더라도 짐작할만 한것이다.

아래에서 나오는 圖表는 지난 5년동안 소련의 武器生産體制를 평가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매년 늘어만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소련의 무기생산체제는 소련의붉은軍隊와 바르샤바동맹국 군대의 무장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취약지구에 무기출를 하는데도 그 목적을 두고있다. 바로 소련이 세계의 최대 무기생산국이라는 사실과 아울러 제3세계에 대한 최대의 무기수출국가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軍備축적은 소련政權이 버텨 보다 총을 더많이 생산하여 결국에는 소련경제의 不均衡을 가져오고 있다. 70년대 소련은 경제성장률이 최하로 내려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GNP의 12~14%를 군비증강에 쏟았던 사실은 아이로니칼한 점이었고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군비증강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大陸間 탄도탄 1천3백98개나 보유

三、소련군의 조직구조

소련 붉은 군대의 원수이며 바르샤바조약동맹군의 총사령관인「쿨리코프」는 세계2차대전의 비극적 경험이 말해주듯이 국가적 종오를 느끼기 앞서 매우신속한 상황적 전략사령탑의 구조를 소련군이 가져야 한다는 고귀한진리를 가르쳐 주었다고 서술한바 있었다. 이 목적에 맞추어 소련군은 중앙통제의 통일된 사령탑을 운영하여 가면서도 필요할 때에는 작은 규모로기능을 분산시킬수 있도록 예하 군 조직구조를 갖춰놓았다.

소련의 육해공군의 직접적인 통제는 국방장관이 행한다. 소련정부내에서 국방장관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이며 연방최고회의와 최고간부회의에 의해 임명되고 부분적으로 책임을 진다. 실제로 국방장관은 소련공산당의 중앙상임위와 정치국에 책임을 진다.

소련 군사조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는 바로 소련의 모든 정책결정의 핵심이 오렛동안 경험을 쌓은 스텝진의 손아귀에 있다는 사실이다.

「브레즈네프」서기장과 그의 핵심 간부동료들이 수십년간 권력의 핵에 머물러왔다. 또한 국방문과위원회는 최고사령부가 군전략지휘부의 기능을수행하게 되며, 이 최고사령부는 당서기장, 국방부장관, 제1국방차관, 정치통제사령관, 5개의 각군 참모총장등이 상임위원 속에 포함되고 있다. 총참모총장의 기능은 최고사령부의 실질적인 집행업무를 수행하며 각 상황에 따라 통일된전략이 진행되도록 종합통제 관의 역할을 하게된다.

전쟁시의 모든 계획을 일괄 통제하기위하여 소련의 붉은 군대는 군작전상 전 세계를 13개의 전역으로 나누었고, 이 분할은 전세계를 그 특성에 따라 분화한것이 특색이라 하겠다.

「戰域內 작전」개념은 선제공격에목적두고있어

팽창도구로代理戰, 무기판매, 고문단파견등활용

◇소련의 연도별 지상군 무기 생산량

	1976	77	78	79	80
탱크	2,500	2,500	2,500	3,000	3,000
T-55	500	500	500	500	—
T-64	500	500	500	500	500
T-72	1,500	1,500	1,55	2,000	2,000
他장갑차	4,500	4,500	5,500	5,500	5,500
견인야전포	900	1,300	1,500	1,500	1,300
자동야전포	900	950	650	250	150
다발로켓발사기	500	550	550	450	300
자동AA포	500	500	100	100	100
견인AA포	500	250	100	—	—
보병무기	25만	35만	45만	45만	40만

◇소련 항공기 생산 현황

항공기 型	76	77	78	79	80
폭격기	25	30	30	30	30
전폭기	1,200	1,200	1,300	1,300	1,300
수송기	450	400	400	400	350
훈련기	50	50	50	25	225
ASW	5	10	10	10	10
헬기	1,400	900	600	700	750
다목적	125	100	100	100	100
合	3,255	2,690	2 490	2,565	2,765

◇소련의 미사일 생산 현황

미사일 型	76	77	78	79	80
대륙간	300	300	200	200	200
원거리用	50	100	100	100	100
잠수함발사	100	200	250	300	300
잠수함 원거리	600	600	600	700	700
잠수함발사	150	175	225	175	175
地對空	4만	5만	5만	5만	5만

◇소련의 海軍함 건조 현황

	76	77	78	79	80
잠수함	10	13	12	12	11
전투함	12	12	12	11	11
소형함	58	56	52	48	52
보조함	4	6	4	7	5

◇소련의 지상군용 무기생산 현황

	76	77	78	79	80
탱크	2,500	2,500	2,500	3,000	3,000
T-55	500	500	500	500	—
T-84	500	500	500	500	500
T-72	1,500	1,500	1,500	2,500	2,500
T-80				시험중	시험중
기타장갑차	4,500	4,500	5,500	5,500	5,500
자동추진야전문	900	950	650	250	150

四、소련戰域軍의 現況

소련의「戰域內 作戰」이란 새로운 전역개념을 꾸준히 발전시켜 실전에 실용중에 있다. 이에 따라 소련은 각방면에 군대를 배치해 놓고 있다.

첫째, 地上軍은 1백82만5천명의 大軍으로 5개의 중요부분으로 나누어 조직되어 있다. 1백80여개 이상의 보병사단으로 구성되어 그중 71%가 기계화된 보병사단이고 25%는 탱크갑사단, 4%는 공수낙하산사단으로 나누어졌고 그 배치지역은 다음과 같다.

소련영내에 주둔한 地上軍이 전체의 79%이며, 東유럽에 주둔한 병력이 16%, 몽고에 3%, 아프간에 2%로 되어 있다.

둘째 海軍力은 그 동안 大洋경비형태로 바뀌어 전세계에 위협을 줄만큼 그 활동범위가 넓어졌다. 2백20여대의 공격용 잠수함을 비롯하여 항공모함, 해상전투함, 크루즈 미사일 잠수함 및 해군소속 비행단과 수륙양용 상륙부대 등 그 위용은 미국에게 커다란 위협을 주고 있다. 소련해군 비행단의 전력만 보더라도 1천5백대이상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다.

세째 전략군은 대륙간탄도탄개발과함께 재래폭격기와 종합미사일 폭격기인 백파이어일종의 개발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소련대륙간전략군의 핵병기를 살펴보면 1천3백98개의 ICBM발사기, 9백50개의 SLBM발사기, 1백56대의 장거리폭격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중에 백·파이어기종이 다수 포함되고 있으며 약 7천개의 핵탄두가 장전되어 있다.

이와같이 군사과학기술의 개발로 범세계적 패권주의를 지향하고 있어 상당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적 패권정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소련은 무기판매라는 형식을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제3세계에 급속히 침투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군사고문단의 형식을 빌어 침투하고 있으며, 경제원조라는 형식을 빌어 정치적 이득을 획득하고있다.

뿐만 아니라 소련은 代理戰의 사용으로 패권계획능력을 놀라울 정도로증대시키고 있다. 「앙골라」內戰에 소련의 代理人 쿠바의 군대를 투입한것을 비롯하여 현재 20여개국에서 3만5천명의 쿠바군이 활동하고있다. 이밖에 소련의 代理人으로 東獨軍을 비롯, 북한군의활동도 현저하게 나타나고있다.

또한 소련은 해외공작의 일환으로 파괴와 살상, 특수군의 진입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같이 소련은 80년대에 들어와서 전략핵병기, 戰域전술, 재래병기전술, 각 군수지원술등을 고도로 발전시켜 팽창정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곧 세계평화에 대한 강력한 도전인 동시에 분쟁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알아야한다. <本社 編輯部>

蘇聯 팽창정책에

요즈음 지구는 이데올로기의 양극인 소련과 미국의 대립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戰後 가장 심각한 국면에 봉착해 있다. 美國을 中心으로한 민주주의와 소련을 中心으로한 공산주의. 그 사이를 비집고 서서히 새로운 판도를 형성하고 있는 제3세계. 이들의 舌戰은 마침내 현실화되어 매서운 강풍으로 변해버렸다. 날이 갈수록 활활 타오르기만 하는 엘살바드로등 中南美 지역, 광활한

사다트死後의 中東

명분앞선 전쟁태도 現實化에 해결 가능성 있어

「埃」·「이」 화해는 정치적 딜레머 해결위한 돌파구

<外國語大교수·政治學> 유 정 렬

戰雲이 여전히 감돌고있는 中東에는「地域的 勢力均衡者(Regional Balancer)가 없으니, 정세는 일층 더 불안해져가고 있다. 국내정치적인 성향은 어떠했든, 이란의 팔레비王과 인집트의 사다트대통령은 이 지역내에서나 국제사회에 있어서나 이 지역의 지역적인 勢力均衡者로서 이 지역의 安定勢 유지에 다소 기여해왔음은 부정할 수 없다.

親西方政權으로서의 팔레비王의 이란政府가 무너지고, 또한 親西方政權으로서의 이집트의 사다트政府가 무너짐으로써 中東地域의 二大强國이였던 親西方的인 두政權이 붕괴됨으로써, 美國을 위시한 西方陣營의 對中東政策은 크나큰 진통을 겪게 되었다.

키신저時代의 美國의 對中東戰略은「테헤란-카이로-리야드축」을 形成함으로써, 反西欧的인 強硬아랍國家들의 氣勢를 꺾고, 蘇聯勢力의 南下와 中東地域으로의 영향력확대를 저지해보려는데 焦點을 맞추고 있었다. 即 保守的인 이란王國과 온건해진 사다트의 이집트와 사우디王國과의 聯合戰線을 形成해 보고자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란의 팔레비 정권은 호메이니옹이 이끄는 이슬람正統주의파세력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다. 1970년대초반에 英軍의 수에즈以東 철수로 힘의 공백을 가져온 세계적인 전략지역인 페르샤만지대의 경찰행위를 이란은 지역적인 세력균형자로서 미국의 군사지원하에 맡아왔던 것이다.

팔레비왕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군사력을 강화하였고 지나치게 의욕적인 근대화작업을 추진하다보니 국내정치, 경제 특히 보수수구적인 이스람정통주의세력에의한 종교인 불안과 문제점들을 이 심각해왔던 것이다. 여기에 팔레비정부몰락의 원인이 있었다고 본다.

사다트대통령의 죽음은 美國전략상 이집트軸의 붕괴를 뜻하게 되었다. 낫세이 생존해 있을당시 중동의 지역적인 세력균형자는 틀림없이 이집트였다. 1970년에 이를 이어 이집트대통령이된 사다트는 1973년의「10月戰爭」에 승리를거두어 아랍世界의「영웅」으로 부상되기 시작하여 자못 영향력을 확대해왔었으나 1978년9월에 체결된「캠프·데이빗드협정」이후 그는 아랍세계에서 고립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이 협상을 주선한 미국이나 당사자인 이집트도 예측하지 않았던 불행한 결과였다.

1967년의「6日 전쟁」때에 아랍세력은 이스라엘로부터 세번째의 군사적인패배를 맛보았다. 이집트는 광대한 시나이반도를 점령당했고, 올단강西岸지역을 빼앗겼으며, 시리아는 골란高原을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했다.

군인·정치가로서의사다트로선, 그의 군사적인 보복과 승리로서, 그의 권위를높이고, 아랍세계에서의 영웅적인 위치를굳혀보려고, 또 나아가서의 中東平和의 길을 모색하려고 온갖 힘을 다했던 것이다. 10월전쟁은 이와같은 사다트의 소원을 다소 충족시켜 주었다. 그러나 戰爭도 平和도 아닌 상태를 더욱 이끌어나갈 수 없는, 정치·경제적인 상황에 사다트는 놓이게되어,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이스라엘과의 單獨和平에서 찾아보려고 하였다.

이집트의 이스라엘과의 單獨平和協定체결은 처이스라엘 공동보조를 취해온 아랍統一戰線에서의 이탈이며, 따라서 아랍세계로 부터는 아랍大義를 배반한 아랍민족의 반역자로 규탄을 받게되었다.

이집트나 미국이 기대하였던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中東의 최대강국인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和平을 하게되면, 그렇게하여 시나이반도를 돌려받게 되면, 온건한 보수왕국인 요르단이 그 뒤를이어, 이스라엘과 평화를맺게되고, 또 요르단江 西岸地域을 돌려받게 되면, 끝으로 골란고원을 빼앗긴 시리아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상을 하여, 양국관계가 정상화되면, 점차 아랍세계전체와의 全面協商 全面平和로 확대되어, 고질적인 중동분쟁은 해결의 문턱을 들어서게 될것이라는 희망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正反對였다. 캠프 데이빗드協定을 체결한 이집트는, 아랍世界에서 完全히 고립화되었다. 아랍世界의 미니 인「아랍聯盟」이 카이로에 있던 이 聯盟本部를 튜니시아로 옮겨갔고, 이를 거부한 에집트는, 카이로에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켜가고 있으니, 二元的인 아랍聯盟의 存在라는 결과까지낳고있다.

미국이 바라고 있었던 이집트와 사다트는 中東地域에서 가장 莫張한 나라로서의 이집트와 이를 이끄는 대통령으로서의 사다트였지, 아랍世界에서 고립화되어 여타 아랍國家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無力한 이집트와 無氣力한 대통령은 아니다. 이와같은 에집트의 存在는, 미국에게 必要없는 이집트임에 따라서, 카이로軸도 테헤란軸에 이어 弱化, 또 무너져버린 것이다.

테헤란과 카이로軸이 무너진상황에서 리야드軸도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미국과는 전통적인 우방관계를 유지해온 保守王國으로서의, 또 最大 中東産油國으로서의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집트와 전분 유지로서 아랍세계로부터 반역시되기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호메이니의 쉬이파세력이 또 사우디王國內의 아주 소수宗派勢力인 쉬이파세력을 선동하고 있으니, 이는 사우디王國의 國內政治不安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또 이 王國內의 一部軍部勢力이나 反体制세력과 야합하여, 王政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으니, 사우디王朝도 국내외정치에 퍽 신중성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사우디王國의 집권세력내에도 美國과의 관계에대한「신중론파」가 대두되어, 특히 美·蘇의 세력다툼에 휘말리기를 회피해야한다는 주장은 강해지고 있다. 즉 리야드軸마져 흔들리게 되었으니, 소위「테헤란-카이로-리야드軸」形成전략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고 美國의 對中東政策은 부재라는 오늘의비관을받게되었다.

위와같은 미국의 정책및 전략적인 실패와는 대조적으로 소련의 영향력은 더욱 南下, 확대되고 있다. 1979년12월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强占과 실질적인衛星國化에 대한 분석에는 여러가지 견해가 나오고있다.

아프가니스탄 侵攻을 前後해서 나타난 소련의 형태에 대해, 공격적(OFFENSIVE)이라는 강경론자가 있는가 하면, 방어적(DEFENSIVE)이라는 온건론자도 있고, 兩者를 다 옳다고 보지않는 中間論者들이 있는등 미국내에서도 엇갈린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다.

공격적이라는 강경논자들의說明을보면, 역사적인 소련의 南下政策을 전제하고 있으며, 1980年代後半期에 들어가서 나타날 소련및 東欧共産圈內의 石油資源 수급問題에 소련형태의 초점을맞추고있다.

즉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선, 석유자원의 부족상태가 소련및 동구공산권내에서 나타나게 될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렇다면 손쉬운 공급원은 페르샤만안의 중동산유국들이며, 이 지역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행사나 침투가 불가피하게된다는것이다.

소련영토에서 페르샤만을 잇는 최단거리는 약 1천1백㎞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페르샤만까지의 최단거리는 그의 절반인 5백50㎞밖에 되지않는다. 그러니까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점유한 것이며, 다음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페르샤만을 잇는 통로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소련정책과제로 보고있다.

어떤 日本의 地政學者는 소련이「하아트랜드-아프리카回廊」(Heartland)을 구축하여 세계패권을 장악하려 하고있다고하며, 이 아프리카회랑내에 아프가니스탄, 오만, 南예멘, 이디오피아, 앙고라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페르샤만입구의 홀므즈해협과 아프리카의 角地帶홍쪽의 바아브 엘 만다브海峽도 여기에 포함되어있다.

여하간 中東地域에서 소련세력은 확대일로에 놓여 있어서, 급기야는 1980년에 제2의「트루먼政策」(Truman Doctrine)이라고 할 수있는「카아터政策」(Carter Doctkine)이, 1980년 1월에 발표되었으니,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침공에 자극된 미국은, 中東地域, 특히 페르샤만지역에로의 소련세력확장을 단호히 저지해 보겠다는 결의였다.

美·蘇의 중동지역에서의 각축이 더욱 격심해지며, 내용에 있어서는 더욱 실질적인 문제로 변화해 가고있는 와중에, 사다트의 죽음은 미국에게 또한번의 시련을 안겨다 주었다.

◇사다트 死後의 中東지역은 무바라크가 사다트의 친미일변도 정책에서 탈피 소련과 미국의 등거리외교를 취하고있어세계의 관심을모으고있다. (사진은 체포되고있는 사다트 저격범)

사다트피살… 美戰略上 이집트軸붕괴 의미

그 이유는, 사다트후계자인 호스니 무바라크대통령이 아랍兄弟國家들에게 關係改善을 촉구하며 强大國政治에선 中立路線을 指向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973년 이후 1980年代初엽까지, 이집트는 아랍兄弟諸國들과는 등을 지며, 미국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해오면서, 미국으로부터 軍事 經濟支援을 크게 받아왔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가지 內外的인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마는, 그다지 희망적이 못되었다. 政情은 계속 不安定하였고, 경제는 좀처럼 正常을 찾지 못했으며, 對外關係도 옛날보다 개선된것이 없었다. 따라서 무바라크대통령은, 사다트의 정책노선을 다소 수정하여 對內外政策方向을 전환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여년간에 明白해진 사실이 몇가지 있으며, 이는 아랍국가들이나 이스라엘을 포함한 非아랍系中東國家들도 잘 인식하고 있는바, 戰爭으로 中東紛爭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과 전쟁은 정쟁당사자 모두에게치명적인부담을 안겨다준다는것이다.

아랍국가들과 이스라엘간의 분쟁은, 어떤면에서는, 실질적인 문제보다도 名分에 좌우되고 있는감마져 든다. 그렇다면 상호 명예로운 후퇴의 계기가 마련되고, 태도가 현실화된다면, 타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時間의 흐름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일것 같다.

어떤 지역적인 세력균형자가 재등장하여 이 지역의 집단안보태세가 공동이익과 상호이익을위해 갖추어진다면 美·蘇간의 이 지역내에서의 각축에도 제동을 다소 걸수있게 될것이며 따라서 이 지역의 위험성은 조금씩 감소될수있을 것이다.

무력충돌을 회피하려는 인류의 노력이 끊이지않고 평화공존속에서 번영과 행복을 찾아야 함이 현실적인 이상임을 절실히 깨닫고있는 근대인이 역시 中東지역의 민족들이겠기에 이네들의 현실적인 思考와 行動에 우리는 기대를 걸수밖에 없으며 오늘의 中東 그이상의 불안정은 없지않을까 생각한다.

예비군 기본교육훈련 일정통보

○예비군 설치법제6조및 동 시행령 13조에 의거 전반기 예비군교육을 아래와 같이 소집함.

○대상 : 전예비군 학생및 교직원, (82년도 1학기 입학, 복학, 편입생포함).

※1, 2학년 학생중 교련을 수강중에 있는 소집면제자(미필보충역)는 예비군교육에서 제외됨

○복장및 휴대품 : 예비군복·예비군모·예비군화·중식·필기구·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대학별 교육 일정

교육 일시	대학별교육학급	장 소	과목
82. 4. 4. (일) 08 : 00—17 : 00	법정대학·농과대학	중강당	정신교육
	사범대학·공과대학	체육관	〃
82. 4. 10. (토) 08 : 00—17 : 00	불교대학·문리과대학	중강당	〃
	경상대학	체육관	〃
82. 4. 11. (일) 08 : 00—17 : 00	대학원(4개 대학원)	중강당	〃
	2부대학	체육관	〃
	교수·직원·조교·용원·장교	공대쎄미나실	〃

☆상기 자기소속 대학별 교육일정을 필히 준수할것

☆교육 개시 10분전 까지 지정된 교육장소에 집합할것

○예비군 교육훈련에 불참자는 예비군 설치법 제51조5항에 의거 고발조치됨.

동국대학교 예비군 연대장

大學院 研究論文集 原稿募集

◇教授論文集

동국대학교 교수의 연구논문 제21집을 발간코자 다음과같이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투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원고제출기간 : 1982. 6. 30 (수)까지
2. 원고매수 : 200자원고지100매 내외
3. 투고 대상 : 본교 전임강사 이상 교수 전원
4. 제출처 : 대학원 교무과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大學院生論文集

본 대학원에서 연구논집 금년도분 제12집을 발간코자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투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 음

1. 제출기간 : 1982. 6. 30(수)까지
2. 원고매수 : 200자원고지 100매 이내
3. 제출자격 : 가) 본 대학원 재학생 (석, 박사과정)및 조교
나) 본 대학원출신 시간강사 (본대학 시간강사에 한함)
4. 제출처 : 대학원교무과
5. 기타 참고사항 : 재학생및조교는 지도교수의 검열날인후 원고를 제출할것

1981. 3.

東國大學校 大學院

軍 행정병 모집 안내
◉만17~25세·소정교육후행정병으로입대·공무원채용·승진시점수가산혜택
◉교련단축·복학시조절가능 ◉本院은 육군본부위촉 행정병양성기관임
종로1가 버스정류장 (725) 2323
서울농협옆 (725) 9716
官認 유니타자학원
◉유학생을위한 논문타자
◉취직대비자를 위한 교양타자
◉해외유학·이민·취업하실분
1개월 완성속성지도
외대타자강사 직접지도
◉최신형美製S·C·M타자기보유
大學교양打字

○학생부·일반부·부녀반
○붓글씨·펜글씨·묵화
현초서예연구원
강남구 도곡시장내 3층 (개나리아파트단지)
TEL 57—7122

안경은 시력검사에 따라
광신안경
▲고도근시▲백내장용▲가벼운렌즈
(724)5559 신예용안과 1층 (3·1빌딩광표중간)

속독
사단법인
광화문지회 : 세종문화회관옆삼보빌딩7층
722-5205

해외유학
TOEFL 없이도 가능
■책임있는 유학안내. 상담. 수속대행
■TOEFL없이 입학허가서 취득
■TOEFL. GRE. GMAT등 각종시험안내및 원서교부
■여권수속및 VISA인터뷰 가이드
■현지 어학연수를 위한 1-20취득
※기타 유학에 관한 모든 일을 책임지고 해드립니다.
한국해외교육 친선협회
종로2가 구삼화고속건너편
전화 272-0930·0931

영어회화회원모집
1. 유학안내 : 미국을 포함한 각국 유학안내 (고졸자와 전문대생도 가능 TOEFL없이도 입학이 가능)
2. 어학강좌 : ●미국인회화(10명), TOEFL반(10명) ●직장인반(약간명) ●주부속녀반(약간명) ●개인지도(방문수업가)
※강사진 : 주한미국 대학교수, 주한 외교사절
3. 외국인과 친교 : 본원의 회원에게 외국인과 여행, 파티, 가정방문, 시사회등의 문화행사를 본원의 경비로 마련함.
Tel : 725-8881
종로2가 YMCA옆 장안B/D 406호.
Language School (한미유학원)

음료·고전음악

공화랑
TEL. 28-0764
(명동중앙극장뒤판넬골목중간)

國外 觀光通譯 에스코타
●現代男女 새職種국가시험대비
●英·日 兩科同時 6個月 教育
●선견지명있는 大学生의 새로운 進路
관광통역 英·日가이드
●觀光入国의 선구자 K.S 語学전통
●英·日 guide 국가시험대비 教育
※ 英語·日語会話특수교육 K.S.語学訓練院
官認 現代観光学院
722-0555 · 724-1455 · 713-1664

단일강좌 많은 학생수
교내특강 새면모 갖춰야

熱意없고 종류 적어 사설학원 이용 학생 늘어나
학교 도서관에서 예·복습하는 장점있어 인기도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기술적 필요는 10개의 대학교보다 더 중요한 과학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본교를 포함한 현재의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에서도 정규 커리큘럼만으로는 보충할수 없는 각종 기능학습이 특강이라는 이름아래 성행중이다.

특강은 원래 요령주의와 편리주의로 불리우는 기성사회의 부정적 요소와 취업우선, 실력향상이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켜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특강의 종류도 취업이나 유학에 절대 필요한 어학, 특히 영어강좌에 집중되어 있고 여학생들을 위한 꽃꽂이등 약간의 강좌가 있을 뿐이다.

현재 본교에서 개설하고있는 특강을 보면 우선 외국어 교육원에서 실시하고있는 TOEFL, Vocavelary특강 중급·고급영어회화등이 있고 이밖에 학도호국단에서 계속 실시해온 일본어, 외국인 학생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중국어 특강등이 어학특강으로는 전부이며 1천6백여명의 여학생들을위한 매듭, 꽃꽂이, 에어로빅댄스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학기중에 개설한것이라 그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나 동계·하계 방학중에는 여기에 몇개의강좌를 덧붙이고 개설시간도 늘려 관심있는학생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먼저 각종 특강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방학기간중과 학기중, 강좌종류등에 따라 특강을 원하고 또 실지로 수강하는 학생들의 수가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있다.

평균적으로는 학기중보다 방학기간에 특강수강생이 훨씬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작년겨울의 경우 뉴우스 위이크(News Week) 강좌가 수강생이 적어 폐반을 했던 예도있어 강좌종류도 특강의 성공실패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수있다. 또한 수강생들이 등록을 할때에 특히 고려되어지는 것은 강좌의 시간이다.

학기중 개설된 강좌는 어쩔수 없이 1교시가 시작되기전인 오전 8~9시 사이와 오후 5~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이지만 방학중에 개설된 강좌의 시간도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져 여름이 아닌 겨울에는 늘 형광등을 켜놓고 수업을해야만 하며 많은 학생들의 외면을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특강이 많은 학생들의 관심속에 진행되려면 강좌종류와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또하나 문제가 되는것이 강좌개설의 종류가 적다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서울의 中央大의 경우를 살펴보면 모든 어학강좌를 통괄해서 실시 운영하고 있는 외국어 교육원이 설립되어 유능한 강사진을 확보하고, 1년내내 Basic English 미국인회화등 7개의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 놓고있어 中央大생들 뿐만아니라 타대학의 학생들이 그 수강생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개의 강좌를 통해 각학생들이 자신의 기호와 실력에 맞는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넓혀 줌으로써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얻고 있다는 본보기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동계방학중 본교에서도 개설된 특강을 외면하고 굳이 시내 사설학원에서 TOEFL을 수강했다는 문리대의 K모군은 『이왕이면 수강료도 싸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강을 듣고 싶었지만 개설된 강좌의 종류가 너무 한정되어있어 할수없이 사설학원에서 수강했다』며 학교측의 진정한 학생들을 위한 특강의 실시를 촉구하기도했다.

◇본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특강은 학생들의 외국어실력 및 교양을 넓혀주겠다는 의도아래 행해지고 있으나, 강사의 공공연한 경질, 마땅한 장소등이없어 큰효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다.

그러므로 현재 많은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교내특강의 활성화를위해서는 강좌개설의 시간과 종류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다.

한편 특강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도 일방적 주입식에 의한 진도를 끝내기에만 급급한 강사,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은 곧 수업에 흥미를 잃어버리고마는 강의 수준, 심지어 개인사정이란이유로 강좌도중 강사가 바뀌어도 모른채 수업을 진행시키는 주관부서등, 많은 문제점을 일고있다.

더불어 『해외유학을 위해 토플자격시험을 치루어야 하기에 교내 특강을수강했읍니다.

그러나 그 강의수준이란 것이 자격시험을 대비하는 저와는 너무 동떨어져 수업 10일만에 시내 사설학원으로 강좌를 옮겼읍니다』라는 영문과의 L모군의 말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듯이 정작 관심있고 수강을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에게마저 외면당하는 현재의 교내특강의 수준과 질에 대해서도 주관부서는 좀더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하겠다.

이에 대해 종전의 경상대 주관으로 실시해오던 모든 어학강좌를 인수받고 새로이 그것을 통괄하고 있는 외국어교육원 朴珍錫원장은 『앞으로는 과거와는 달리 특강수강 학생들의 실력수준을 감안해서 토플강좌등은 A·B반으로 반을 구분해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교내외의 우수한 강사진을확보해서 고정적으로 강좌에배치하겠다』고말하며 가장학생들에게 지적을 많이받고있는 강좌개설의 수에대해서도『英·独·日語회화에 중점을둔 특강과목 확장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역시 학교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들이기에 이에따른 관련부처의 협력·지원이 특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한편 여학생 특강의 실정을보면 지난달29일 매듭강좌등 3개의 강좌를개설하고 수강신청을 받고있으며 에어로빅 댄스의경우 세태의 유행풍조에 민감한 많은 여학생 신청자들이 몰려들고있다.

그러나 이 강좌의 경우에도 강의에 필수적인 요소라할 수 있는 녹음기조차 주관부서에 구비되지않고 강의실마저 체육관의 태권도부 연습실을 이용할 예정이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있다.

그 예로 녹음기구입문제를 보면 주관부서인 여학생감실에서는 이 과목이 본교 여학생들을 위한 강좌라는 이유로 학도호국단부에서 구입해 기증해줄 것을 원하고 있으나 호국단부에서는 학교측에서 학생들을 위해 녹음기 하나 구입해주는 성의가 없는데, 이것을 학생들이 납부한 호국단비로 구입해 학교에 기증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런 사소한 문제로 특강자체에 어떤 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하겠다.

종합적으로 교내특강은 도서관에서 예·복습을 할수있다는 좋은 여건아래 이루어 질수있는 잇점이 있으며 또한 효율적으로 이용만 한다면 교내 면학풍토 조성에도 중요한 것이므로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개설강좌의 종류와 시간의 다양화, 강좌의 질적 향상, 학생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관부서의 성의있는 특강준비, 그리고 학교당국의 좀더 관심있는 지원등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李澤 기자>

韓國女性政治論
백경남著

書評

民主主義를 근간으로 하는 政治提議
女性政治論 없어지는 社會위해 집필
男女間의 평등은 가장 기본적 원칙

男性의 이름을 가진女性 정치학박사인 白京男교수가 이번에 내 놓은 「韓國 女性政治論」은우선 오늘날까지 男性優位的으로 살아온 현실에대한 과감한 도전으로 보인다. 남성의 모습을 한손으로 들고 있는 표지의 그림이나『轉換期의座標認識!』이라는 선전문구가 강렬한 투쟁욕을나타내는 듯이 보인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의 현실은 남성이 정치적 결정권을 독점하고 조직의 원리를 명령하는 권력을 행사하고있다』(P·18)고 진단함으로써 마치 서구적인女性解放의 극단적인 사례를 본듯한 인상을 준다.

그렇다면 이 책은 여성의 權益을 신장시키려는 단계를 지나서 남성을 지배하려는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여성 대통령을 선출해야 된다는 뜻인가?

女性政治論이 존재한다면 男性政治論도 존재한다는 뜻인가? 政治論은 존재할수 없으며, 또한 현재까지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女性政治論을 들고 나온 저의는 무엇인가?

나의 이상과 같은 의구심과 반발심은 책을 읽어가면서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오히려 「암탉이 활개를 치는」 정치가 아니라, 순수한 민주주의를 기간으로 하는 정치를 제의하는 저자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겠다.

첫째, 민주주의는 平等의 원칙에 바탕을 둔政治體制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특징은「정치권력이 사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유사이래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모든 정치제도 가운데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제도이다」(P, 201)。

男性優位 現實에 도전
人間的인 불모를 극복

둘째, 그런데 여기서말하는 평등의 원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男女의 평등이다.「인간으로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지니고 자유롭게 태어났기 때문이다」(P, 15)。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역사에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제약을 받아왔고, 그러한 추세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상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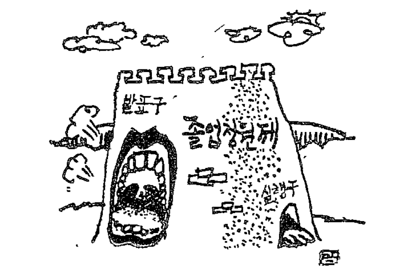
네째 그러므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는 현실의 「인간적인불모를 극복하고 남성과여성의 인격이 동등하게존중되는 방향으로 변혁」되어야한다. (P 19)

다섯째, 그러므로 여기서 주장하는 남녀평등은 남성의 女性化나 여성의 男性化를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타고난 性 본래의 고유한 임무를 뒤바꾸자는 것도 아니다。그것은 곧 人間平等인 것이다。

저자는 女性政治論이 없어지는 사회를 만들기위하여 여성정치론을 쓴것이다。그것은 마치 女性學이 필요없게 되기위하여 오늘날 여성학을 개발하고, 佛經을 불사르기 위하여 佛經을 주야로 묵상하는 禪士의 태도와 같은 것이다.

黃弼昊 <文理大교수·宗敎哲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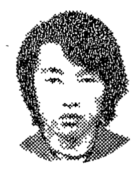
東國漫評



◇포효와 침묵

퇴임 기자의 辯 "원고지에 메워버린 大學生活"

新聞社시절 3년 짝사랑만은 아니었다



鄭羲成 <취재부장>

짝사랑만은 아니었다. 新聞社에 몸담은지 만3년. 大學時節 거의 全部를 신문쟁이 노릇을 해오면서 후회의 감정이 그다지 크지만은 않은 것은 新聞社도 또한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자위해서일까. 수습기자 시절 시계추라는 별명은 나의 신경을 항상 곤두세웠고 부대껴오는 日常의 아픔들은 지금도 몸 어느 구석에서 끈끈한 회오의 찌든기로 남아있지만 東岳의 3년을 記者라는 사명감으로 채웠다는것에 대해 한편으로 어깨가 우쭐해진다.

격동의 몇해를 후배들, 또는 지금은 곁에 있지 않은 선배들과 지내며 때로 우울했고 떠려는 기쁨도느꼈다. 퇴임을 맞은 지금, 4명의 동기들이 같이 자리를 못했다. ㅈ, ㄱ, ㅎ은 軍에 입대했고 여자동기인 ㅈ도 떠나 버렸다. 결국은 떠나는 것이다. 우리의 매듭을 이루어 주었던 情만은 남아도 우리는 떠나야 한다. 먼저 신문사를 거친 선배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부덕한 탓으로 우리보다 먼저 떠나보낸 후배들이 생각난다. 다시 만날 것이다. 교정에서, 그리고 더욱 자주는 퇴기의 신문이지만 신문사에서, 적어도 東岳을 떠날 때까지는….

그동안 술도 늘고 담배는 여전하고 사랑하는 법도 배웠다. 날기를 원하는 한마리 애벌레로 자처하던 수습시절의 나를 떠올리면 다시 웃음이 나온다. 언젠가는 내가 신문사를 뛰쳐나갈 것이라는 불안에 찬 질문을 던지던 선배가 생각난다. 大學記者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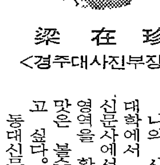
"우리의 매듭을 이루었던 情만 남기고 나는 떠난다"

해본 사람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우스개 말로 써놓고 내밀지 못한 사퇴서가 단행본을 만들어도 족히 되지 않을까.

기자, 학생 또는 신문, 학업 양자가 주는 대립의 갈등을 어느 정도는 참고 극복하는 슬기를 얻었다. 신문사에서 잔뼈를 굵히며 대학시절을 보낸 나로서 얻은 결과가 그것만이라면 지나친 겸손일까. 많은 분들을 알고 나가는것 같다. 홍기삼, 유광진 주간님, 홍신선, 김용철국장님을 비롯 항상 먼 발치서 격려를 아끼지 않은 송혁교수님을 비롯한 동창회의 선배님, Y형, K형 등 퇴기의 변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거의 그분들 탓(?)이다. 막상 멍석 깔아주니 할 말이 없다. 후배들아 남기노니「사랑하는 法」강의만은 충실히 듣자.

나의 사랑, 나의 발자취, 아쉬운 추억들

방향아닌 방랑찾아 떠날터 死別만큼이나 애절한 아픔



梁在珍 <경주대사진부장>

계절은 어느덧 신춘을 지나 완연한 봄의 자태를 자아내며 신록의 계절로 접어 들고 있는가보다.

목련꽃 향기가 이 계절과 더불어 화사한 봄볕보다 향기로운데 퇴임기자의 변이라니 정말 세월유수인가보다.

3년전 大學 캠퍼스에 첫발을 들여놓고 대학이라는곳이 어떤 곳인가도 알기전에 동대신문사에 입사하여 그해 어느 여름날밤 서해안의 달산포 변안에서 진땀을 흘리며 신고식이라는 불문율의 의식을 치른 정경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벌써 이런 서글픈 글귀를 끄적이게 되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기만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는 노릇이다.

나의 사랑, 나의 발자취, 대학에서 걸어온 길은 동대신문사에서 새 삶의 다른 한 영역을 확보하진 못하였지만 맞은 볼수 있었다고 자부하고 싶다.

동대신문 한자한자에는 동대신문사 전체기자들의 땀흘린 노고의 흔적이 하나하나 어려있는 것이다.

기사는 발로 써야한다고, 선배기자의 명령은 하느님의 명령과 동격이라고 한는식의 얘기도 이제는 아쉬운 추억의 순간들로 돌아가 버리고 나는 다시 이도시의 밤으로 방황아닌 방황을 위하여 떠나고 말련다.

동국의 학형여러분, 앞으로도 동대신문이 이나라 대학사회의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을 대변할 수있는 좋은신문이 될수 있게 보다 사랑해 주시고 끊임없는 사랑의 성원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동대신문사를 떠나는 것은 동대신문사에 발을 들여 놓음으로써 알게된 사랑이란 단어에 눈을뜨게해준 숙이라는 소녀와의 사별만큼이나 서운하고 애절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다.

숙의 영전에도 퇴임기자의 변, 이 지면을 빌어 명복을 빌고 싶다.

내가 동대신문사에 쏟았던 애정만큼이나 좋은곳에서 동대 신문의 발전을 지켜 보아 달라고….

신고합니다. 퇴임기자 양재진은 존경하옵는 동국의 학형과 후배기자 여러분께 4월의 어느날 동대신문의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며 퇴임기자의 변을 올립니다.

내게도 뒤돌아볼 사연있음에 感謝

崔恩榮 <문학부장>

지난 가을 새로 이사해 들어간 우리집 창문은 비현실적이리만큼 투명하였다. 그래서 그 창문너머로 보이던 Korea의 하늘은 참으로 넓고도 깊었다.

그 하늘을 아련하게 물들이던 노을을 바라보며 문득 두어해 전쯤 그 노을을 오려다 東大新聞을 모자이크 하겠다던 조금은 팽팽하고 촌스러웠던 꿈을 되살렸다.

그러나 이제 그 소망이 하늘에 걸린 노을만큼이나 덧없이 스쳐갈을 본다. 내가 이룬 3年의 時間들은 무엇이었는가. 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만났고 떠나보냈고, 그리고 이제 나도 떠난다.

그래, 산다는 것은 언제나 그렇게 뒷맛이 씁쓰레하게 달디단 사카린맛이지. 어느 순간 욹기 시작하고 그러다 제풀에 지쳐 쓰러지고, 종오도 사랑도 용서도 모두 순간이듯이 우리는 그저 그렇게 무방비로 살 수 밖에 없다. 누가 삶에 대해서 완벽한가.

지난 3년은 마치 「한많은 미아리고개」를 넘는 리듬과도 같았다. 때때로 힘들고 얼마간 즐겁다가 아주 많이 쓰디쓴 그런 맛이었다.

저 고개를 얼마쯤 더 넘으면 하늘과 땅이 마주 보일까.

할 말이 많아 발길이 묶여서 차마 떠나지도 못하고 그러나 넘기는 넘어야할 고개.

우리들은 모두 고개를 넘고 있었다.

내 3年의 세월이 그 고개를 넘겨줬고 그 속에서 침묵하며 넘는 法을 배웠지만 나는 아직도 산허리에 머문다.

이제 그 고개를 돌아다보며 내가 할말은—없다. 아무

"그동안 만난 아름다운 인연들을 사랑하며…"
「사는 연습」에 충실했던 세월

것도 없다. 모든 삶의 모습이나 우리의 진실이 상투적이듯이 다만 그렇게 「사는연습」에 충실하였음을.

체질적으로 바빠야 살 맛나는 내게 신문사는 충분히 살 맛나는 곳—그러나 때때로 너무 지나쳐 절망에 빠뜨린는게 흠이였지만—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로 내게도 뒤돌아볼 사연이 있음에 감사한다.

날마다 다녀도 항상 낯설은 거리, 그 길 한모퉁이에서 홀연히 빛나던 수많은 어휘들, 목소리를, 독특한 웃음소리를 나는 아낀다. 그동안 만나게 된 많은 아름다운 인연들을 사랑하며 욺어버릴 것이 없어서 풍요로운 오늘 모처럼의 여유로 오랜 시간 기다려준 내 가족과 친구들과 후배들과 둘러앉아 가슴이 시리도록 Korea의 붉하늘이나 바라봐야겠다.

다시 만남을 믿기에……

포플러 잎새처럼 해맑던 얼굴들, 이제 떠나 곁에 없지만…이별이 더 큰 기쁨을 위해 사루는 고통의 축제임을 믿기에 우리는 울지 않을 것이다

韓龍雲의 詩를 음미하다보면 주옥같은 이미지가 등원되어 이별의 美學이 전개됨을 알수 있다. 「會者定離」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우리들 人間事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만남과 헤어짐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인지할수 있다.

國民學校 교정에 우뚝 솟아있던 포플러나무의 맑은잎새들, 바람에 날려 손뼉을치는 포플러의 잎새처럼 해맑은 얼굴로 마주 하던 국민학교 동창생과의 헤어짐을비롯, 우리는 얼마나 많은 헤어짐을 추억의 章속에 여미어 왔던가.

그렇게 자상하던 할머니가 돌아가실때 임종도 지켜보지 못한 회한은 밤마다의 그리움으로 바뀌어가고 홀연히찾은 묘소엔 멧새들의 낮은울음소리만 퍼져나갈 뿐. 비는 연신 내리고….

우리들은 성장한다. 헤어짐이 주는 고통과 우수를 자양분으로 삼아 우리는 의식의 열매를 성숙시킨다. 그리고 우리는 표정을 만들어간다. 외로와도 외롭지 않은듯 허전해도 허전하지 않은 듯 주머니에 깊숙히 손을 질러넣고 도시의 골목을 수없이 지나칠 수 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다시 떠올릴 것이다. 얼굴, 얼굴들을, 미숙해서 더욱 정겹던 지난날 주위의 사람들이 지어내던 몸짓들을, 떠드는 목소리까지 생각해내곤 골목어귀의 선술집을 찾아들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혼자였다.

학예회가 끝났을 때 손에 쥐고있는 빨간 능금빛마저 그렇게 생소해 보이고 홀로 집으로 발길을 옮겨야 했다.

방, 창가에 묵쉬도록 수런대면 쓰르라미의 노래도 멎고 작은 별빛만 창가를 지키면 우리는 멀리 떠날 것을 생각한다. 언제나 함께이기를 굳게 믿었던 떠나간 이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여행을 꿈꾼다. 간이역을 지나치며 떠나간 이들의 이름을 불러 볼 것이다.

세월이 또 그런듯이 흘러가고 우리는 다시 혼자여도 웃을 수 있다. 空手來 空手去, 왔다 그냥 가는 삶이기에 연연해 할 것도 집착할 것도 없지않은가. 그러면 고독의 철학은 더욱 깊이를 더해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는 여유도 얻을 수 있을것이다.

다시 만날것이다. 만나 잠시 끊겼던 인연의매듭을 잇고 밤을 지나 또 다른 낮까지 앉아 담소할 것이다.

다시 만날 것을 믿을 수있는 삶이기에 헤어짐이 결코 아픔만은 아닐 수 있다. 이별은 더 큰 만남의 기쁨을 위해 준비해 두는 등잔불의 기름일진저….

허 위 <문리대 국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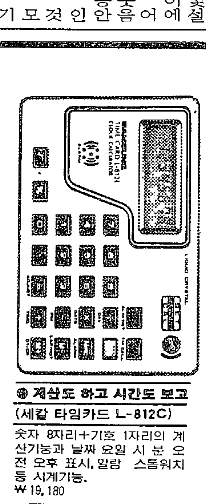
이공대생의 필수품
三星 공학용 계산기를 소개합니다.

理工大生을 위한 ——
三星 공학용 계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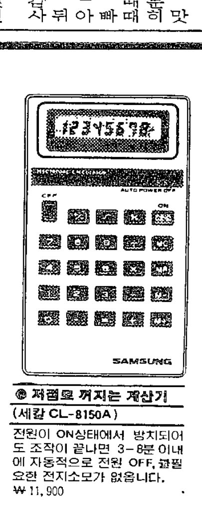
공학용계산기를 찾기위해 암시장을 헤매십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읍니다. 三星電子가 공학도를 위해 내놓은 세칼L-1011S.
이공대생에게 필요한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자랑스런 우리의공학용 계산기입니다. 암시장의 외제계산기와 그 성능을 비교해 보십시오.
기능이 다양해졌고 조작이 간단해졌읍니다. 이제부터는 세칼L-1011S에 공학계산을 맡겨 주십시오.

◉三星 세칼 L-1011S의 특징
◉10자리의 폭넓은 계산범위(10^{-196}~10^{107}) ◉다양한 통계기능 : $\bar{x}$, $\sum xi$, $\sum xi^2$, n, V, $\sigma(n-1)$ ◉정규분포계산 ◉HYPERBOLIC 및 ARC HYPERBOLIC계산기능 ◉DEG, RAD, GRAD 및 통계(Σ)의 키 버튼식 MODE전환 ◉DEG⇌RAD, RAD⇌GRAD GRAD⇌DEG의 각도 단위계산 ◉순열(nPr) 및 조합(nCr), 계승($x!$) 계산 ◉60진수⇌10진수, 극좌표 및 직교좌표 상호변환 ◉완전 독립 메모리 1조 ◉LCD 의 다양한 표시 : INV, F, HYP, Σ_{ont}, ΣXP, M, DEG, RAD, GRAD. ◉휴대하기 간편한 수첩형 LCD 전자계산기 ◉저 전력소모 : RW-44 2개를 1회 내장으로 1,000시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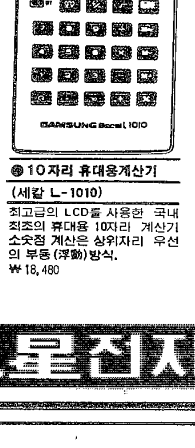
◉소비자가격 ₩2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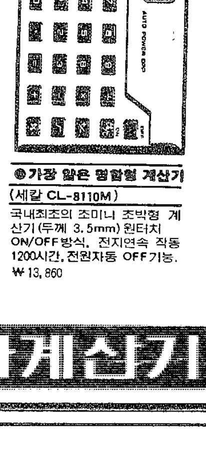
◉계산도 하고 시간도 보고
(세칼 타임카드 L-812C)
숫자 8자리+기호 1자리의 계산기능과 날짜 요일 시 분 오전 오후 표시, 알람 스톱워치 등 시계기능.
₩19,180



◉저절로 꺼지는 계산기
(세칼 CL-8150A)
전원이 ON상태에서 방치되어도 조작이 끝나면 3-8분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원 OFF, 불필요한 전지소모가 없읍니다.
₩11,900



◉10자리 휴대용계산기
(세칼 L-1010)
최고급의 LCD를 사용한 국내 최초의 휴대용 10자리 계산기 소숫점 계산은 상위자리 우선의 부동(浮動)방식.
₩18,480



◉가장 얇은 명함형 계산기
(세칼 CL-8110M)
국내최초의 초미니 초박형 계산기(두께 3.5mm) 원터치 ON/OFF방식, 전지연속 작동 1200시간, 전원자동 OFF기능.
₩13,860

三星電子
■제품구입문의 : (본사)777-0647, 771-33(교)2572 ■총판전문점 : (주)서도실업 269-6853~4 ■직매장 : 롯데쇼핑, 미도파, 신세계, 각대학매점
■전 문 대 리 점 : (서울)동아사무기 752-1928, (부산)삼성사무기 22-4606, (광주)전남특판상사 56-9198, (대구)동아사무기 22-0440, (대전)충남북특판상사 22-5997, (제주)제주특판상사 2-8128, (강릉)강릉 ECR 2-7979
■전국지정업체 : (인천)조양사무기 73-2171, (춘천)한일기계상사 2-4164, (원주)새한상사 2-6864, (충주)대한사무기 2-2291, (전주)대성사무기 2-0712, (마산)서흥사무기 2-9763, (울산)보광사 2-2979

三星전자계산기

신해혁명 東洋共和政의 시발점

◇東洋共和政의 도화선이 되었던 辛亥革命이 70周年을 맞는다。帝國主義의 東洋침식을 막고자 5천년의 王朝를 포기한 당시의 中國의 상황을 알아보므로 現代를 주도하는 젊은 知性에게 우리의 資政을 생각케 하고자한다。<편집자註>◇

머릿말

中國近代史는 자기근대화를 지향한 즉 중국내외의 諸矛盾에 대항할 일련의 역사발전과정이라 할수 있다。內的으로는 봉건적 생산관계의 와해현상이 표면화되어가는 과정이고 外的으로는 帝國主義에 의한 半植民地에의 길을 연 阿片戰爭등으로 인하여 동양사회가 겪는 일반적 양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역사적 상황아래 思想的 형태에 있어서도 淸王朝의 봉건적 의식형태가 서서히 서구의 근대적·시민사상과 같은 일련의 사상적 흐름이 도입 혹은 自生的으로 확립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아편전쟁이래、半封建 半植民地의 상황에 대한 反封建 反帝國主義의 투쟁이 太平天國운동으로 나타나고 이는농민에 의한 민중운동으로써순환적 王朝교체와는 의미보다도 近代를 향한 自生的 생산력의 발전에 기초하여 일어난 농민혁명의 성격이 그의 존재법주인 것이다。부연하면 太平天國이일어난 19세기중엽 中國에는 전통적 농촌사회의 구조적 질서가 분해되는 상황의 자기전개이나그 정도가 미숙하고 또한 外的帝國主義에 의한 中國역사의 自己內的 발전에 대한 장애요소로서 아편전쟁 직후의서구문명의 파생적 영향이 혼재하여 결국 종교적 外皮의 형태를 가지는 농민전쟁인太平天國운동은 혁명의 미숙성을 나타낼수 밖에 없는 자기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하겠다。

그러나 이 운동의 성격은 中國의 문명전통과 구사회질서의 전체에 대한 근본적문제제기로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할수있다。外的 阿片戰爭과 內的모순의 첨예화를 표현한 太平天國이후 봉건적 사회경제적 체계의 와해에 대한 淸朝의 반동으로 위로부터의 개혁인 洋務運動(1864~1894년)變法운동(1898년)義和団운동(1900년)그리고 3차에 걸친 辛亥革命 그후의 5·4運動으로 이어져가는 과정이 바로 中國의 근대적 역사발전 과정인것이다。

본론

근대화는 자본주의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다 하겠다。中國의 자본주의의 경제는 半封建 半植民地社會의 형성과정에서 발전한것으로 그것은 두가지의 주요한 저해요인 즉 봉건주와 제국주의의 압박의 힘의 크기에 의하여 발전이 규제되어 왔다。中國에서 자본주의가 조속히 발전할수 없었던 원인은 이와같은 국내의 봉건적 정치세력의 束縛과 障害 그리고 국내의 세계자본주의의경제의 압박과 타격때문이라고 할수있다。

그러나 中國의 資本主義는 半封建 半植民地狀態속에서 나마 그 나름대로 꾸준히 成長해왔고 그에 따라 中國의 民族資本家는 그들의 실력을 신장시켜 온 것으로 辛亥革命은 이러한 社會經濟的 變化를 반영하였지만 그 당시의 民族資本家는 아직 그세력이 미약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辛亥革命은 자기 한계를 객관적으로 지닌 채 수행되어졌던 것이다。淸의 末期는 中國歷史上에 있어서封建社會와 근대자본제사회사이의 비약적 발전의 과도기적 상태이라 할수있는데 제국주의에 의한 외부적 충격에의하여 근대적 사상의 中國自體의 資現을 제약당하여 오는 파정으로 표현되어 질수 있다。

中國 전통적 政治秩序에 종지부

西歐革命이 지닌 政治·社會革新的 성격

이런 상황에 대하여 洋務運動、그리고 西洋으로 부터의 민주주의가 제기된 戊戌改革이라는 단계적인 社會改革風潮가 전개되었으나 이런 지엽적인 개혁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결국 滿淸打倒와 더불어 봉건적 사회의식에대하여 人間權利라는 근대적사상을 가지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만청정부를 타도하고 공화정체를 실현코자 하는 계열의代表的지도자가 孫文이라 할수있다。

즉 近3百年에 걸친 淸國의 絶對專制君主制를 타파하려는 한운동의 과정이 辛亥革命이요 中國民族에게 民族的 課題와 근대적국가의 思想的方向을 鮮明히 設定해준 의미에서의 辛亥革命이란 그사상적 원천에 있어서 주로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남북전쟁직후에 겪은 政治및 社會革新의 흐름에 있다고 파악되어진다。 1911년 武昌起義에서 淸帝宣統의 退位를 前後하여 일어난 일련의 정치변혁을 辛亥革命이라고 하며 이 혁명의 의의는 中國의 오랜 전통적 정치질서에의 종지부라는데있는것이다。

中國근대사의 변동기에 있어서 서양의 충격에 대한 체제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異民族의 지배에서 벗어나 漢人에 의한 국가가 수립되어야 하고 그 국가는 民主的 共和政治를 구현하여야 한다는 입장은 서구 열강과의 不平等條約의 구속에서 자기발전이 규정당한 發生期의 民族資本家와 활동무대를 제공받지 못한 新知識人層등에 의하여 民族主義를 서양충격에 대처할 기반으로 내세워 전통적 排外사상과 현실적압박으로 결과된 농민의 反淸反洋의식을 이용하여 혁명적운동을 수행해 나가려는 것이 辛亥革命에 있어서 간과할수없는 점이었던 것이다。

1911년 사천성에서 일어난 폭동이 계기가되어 혁명파는 무장을 점거하는데성공하였다 사천성의 폭동은제국주의 세력의 경제적침략에 대항하는 이권회수운동의 한 표현이며 이러한 이권회수운동의 배경에는 외국자본의침투에 자극받는 발생기의 민족자본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이때가 宣統3年(辛亥) 8월19일이며 新曆으로 10월10일(双十節)이었다。武昌에는 군정부가 세워지고 이러한武昌起義의 영향은 급속히 전국에 파급되어 廣東省등 여러 城市가 독립을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11월에 漢口에 모인 11省대표 대표 24명은 中華民國임시정부대강의결하였고 英國에서 급거귀국한 孫文을 맞아 임시대통령으로삼고 南京攻略후 그곳에서 신정부를 조직하기에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淸朝는 新式軍隊 지휘자인 袁世凱를 기용하여 진압하려는 시대적반동의 대응양식을 취하였고 한편으로는 사태의 긴박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憲法의 기본이될 19信條를 공포하였는데 國會의 권한을 강대하게 한다는 立憲君主制의 원칙은 淸으로서는 시대적 자기한계를 돌어냈다고 할 수 있다。이러할때 孫文과 袁世凱사이에 淸帝의 退位、共和制政府에서의 袁의 大總統취임이라는 內約이 이루어져 1912년2월12일 幼帝宣統이 退位하고 3일후 南京革命政府의 국회인 參議院은 袁世凱를 中華民國 大統領으로 추대하였다。

그러나 辛亥혁명은 군벌、地主官僚秘密結社、발생기의민족자본 그리고 제국주의의정략적 후원등의 복잡한 바탕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혁명의 주도권이 袁世凱의 北洋군벌에게로 넘어가자 辛亥혁명의 중심체인 중국동맹회의 분열현상이 초래되었던것이다。또한 지주관료의 전근대적 구질서는 아직도 팽배하여 있었다。民國元年(1912)동맹회를 재정비하여、국민당이 형성되고 국민당을 대변하는 국회와 총통과의충돌은 필연적이었던 것이다。

1920년대초에 있어서 孫文은 三民主義革命은 중국사회의 현실로보아 국내의 封建的 요소와 외국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을 그중심으로해야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봉건잔재와 제국주의와결탁된 軍閥들의 군사력을 이용해서 혁명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착오이며 새로운 혁명은 민중을 기초로해서 진행되어야만 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孫文과 러시아혁명후의 코민테른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었다고도 할 수 있으나 결국은 중국적입장에서 중국의 경험을 통하여형성되어진것이라할수있다。

孫文의 이 뜻은 北伐로서 구체화되었으나 그의 客死(1925년)뒤 많은 역사적 문제를 남긴채 蔣介石에 의한 北伐完成으로 일단 이루어졌다 하겠다。

결론

封建的 정치세력 中國 근대화 막아

孫文의 三民主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孫文이후의 蔣介石이 주도한 辛亥革命과정을 파악함이 중요하다 하겠다。1924년 黃埔軍官學校에서 孫文이 강연한 것을 기초로 하여 三民主義를 살펴보면 民族主義、民權主義、民生主義로 구성된 것으로、이는 절박한 中國의 그 시대적 산물인 것이다。

첫째 民族主義란 滿淸打倒와 漢人의 中國統治라는 槪念만이 아니고 점차 그내용이 中國內 여러 민족들간의 平等과 중국에대한 帝國主義의 침입을 배격하는 것이내포되어져있는 것이다。이는그 당시의 發生期的 民族資本의 의미가포함되어져있다하겠다。

두번째 民權主義란 君主制를 폐지하고 共和制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강조되었는데、그 내용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主權의 표현은 立法權 司法權 行政權 考試權 監察權의 治權과 국민의 권한과 관리에 속하는 선거의 권리、파면의 권리、법률제정과 개정의 권리라는 政權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하였는데、이는 서구의 근대적사상과맥을같이하는것이다。

그리고 民生主義란 經濟的인 불평등을 시정하려고 한 것으로서 사회정책을 의미하는데、토지값이 앙등함으로써 토지가 소수에 의하여 집중됨을 막으려는 地權平均과大資本의 횡포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일종의 反独占的 사회정책인 資本節制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점은 辛亥革命의 역사적 방향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는 것이다。결국 孫文이생각한 辛亥革命은이러한 三民主義에기초한민주공화제의확립이라는데있는것이다。

太平天國 洪秀全의 계승자로 자처하였고 三民主義에입각하여 太平天國運動을 높이 평가한 孫文이 北伐中 客死한뒤 國民黨의 실권을 장악하여 北方軍閥에 대한 國民革命(1927~28)을 右傾化시켰던 蔣介石은 太平天國의 民族思想을 찬양하면서도 國共內戰이후 農民軍(紅軍)토벌전에서 太平天國의 진압자인 曾國藩을 모범으로 숭배한것은 歷史의 내용과 형식의 不協和音을 표현한것이라 하겠다。

辛帝勳 <문리대·철학과>

——— 本校 박물관

활발한 參與 적극적 投資 필요해

구석진 위치와 낮은 弘報로 利用率 저조해 문제

專門 博物館으로 성장위해 學術機能 강화해야

일반적으로 박물관의 기능을 든다면 첫째 박물관의 자료수집기능、둘째 그것의 보존및 보관기능、셋째 연구 및 분석기능、네째 전시·해설등 교육기능을 들수가 있다。

특히 대학박물관의 경우에는 문화재를 수집·보존한다는 일반적인 기능이외에 학생들에게「역사의 산교육」을시킨다는 교육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된다。며칠전 본교의 교내 박물관이 9개월간의 재정비를 끝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개관을 하였다。

본교 박물관은 현재 본교 총장으로 있는 황수영박사에 의하여 지난 1963년9월1일에 개관되어 올해로 20년째를 맞고 있는데、그동안의 업적들을 고찰하여 볼때 그다지 뚜렷한 발전을 이루어 놓지는 못한것 같다。

박물관의 관리및 활용도에있어서 본교 역시 他大學들이 안고있는 제반문제점들을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한국 대학 박물관 협회」에가입된 학교는 모두 48개 대학이고、각 대학 박물관에 소장된 각종 유물들을보면 비교적 규모가 괜찮다는 학교의경우가 2천여점 정도이고、이에비해 본교의 소장품은 천여점에 이를 뿐이므로 학문연구를 위한 자료활용적인 면에서도 결코 충분하다고는 할수가 없다。

이에있어서 문화재 구입에 선결문제로 따르는것이 예산인데、현재의 예산으로는 1년에 작품한점 사기조차 어려운 실정이고、비싼돈을주고 문화재를 구입하기보다는 기증하는 사람을 잘찾아내는지 발굴팀을 이끌고 곳곳을 누비며 재주껏 찾아내는 수밖에 없는데 이방법역시도 현실성과 확실성이 크지는못하나 이러한 방법등을 포함한 소장품 구입에대한 학교당국의배려와 재인식이 절실하다。

본교 박물관은 설립취지부터가 학교의 특성을 살린 佛敎博物館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었고 또 현재 소장품의 내용도 불교미술품들이 대부분이다。

특정한 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위치의 박물관으로 성장하려면、학술기능적인 면의 체계적인 연구와 정리가 강화되고 활발해져야만 할것이다。

그러나 현재 본 박물관에는 學藝硏究員 1명만이 있는 실정인데、이러한 인원으로 앞에서 말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일이 아닐수없다。

또한 본 박물관의 학술활동을 나타내는 것으로는「불교미술」이라는 논문집이 일년에 한번씩 발행되고 있는정도에 그치고 있다。

다음으로 들수 있는것이 학생들의 이용도인데 우리나라 대학생들 만큼 학생들이 박물관을 찾지않는 경우도 드물다고 하지만 문제는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도 학교당국의 책임이라는 사실 또한 강조되어야 할것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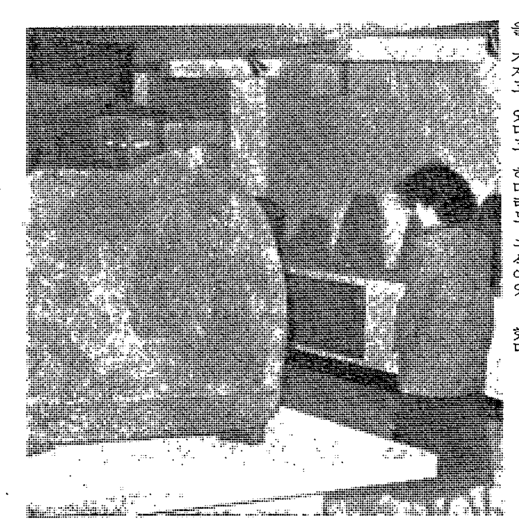
혜화관1층에 자리하고 있는 박물관은 현재 그 관람시간을 오전12시에서 오후2시까지 2시간 동안만 개방하고 있는데 관람하는 학생들이 하루에 2십여명 정도밖에 되지않는다。

이는 제한되어있는 시간상의 문제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6분에 1명꼴로 관람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저조한 이용률이 아닐수 없다。

그 이유는 박물관의 위치가 일반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과는 많이 멀어져서 외딴곳에 있다는 것과、학생들의 박물관에 대한 인식및 홍보상에있어서의 미흡이나문제점을 들수가있다。

J科의 K君은『科友들 중에서는 아직도 박물관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 것인가를 모르고 있는사람들이 대부분인것 같습니다。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석에있고 거리가 멀기때문에 자주 오기는힘듭니다』라고 말했다。

또 C科의 A君은『박물관이 너무작다는 생각이 듭니다。현재로는 진열실이 하나밖에 없기때문에、소장품도 2백50여점 밖에는 전시를 못하고 있는 것같고、유물들의 분류도 효과적으로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한데 묶어 놓은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전시실도 여러개를 확보하고 각 전시실마다 특색있는 성격의 유물들을 전시할수있는 박물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29日 본교 박물관이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다시문을열었다. 본교 박물은너무구석진위치와 소장품들이 잘알려지질않아 이용률이 적어문제시되고있다.

이 없게 되는등의 불편한 점과 학생·들이 박물관을 둘러보게 되는 기회가 적어지는등 여러 문제가 파생되기도하는데、우리 학교의 경우、단독건물은 요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박물관의 위치에 대한 재고가 있거나 이에 상응할수 있을만한 홍보의 측면이 재검토되어야만 할것이다。

이에대해 학도호국단의 B부장은『장소의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당장 어떻게할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신축건물들을 짓게되고 그로 인하여 각건물간의 이동이 있게될때에는 반드시 이문제를 소홀히 하지말고 고려를 해주었으면 합니다。대학박물관이란 단순한유물의 집합장소가아니라 역사의축적이고산교육의 場일 뿐만아니라 학교의 상징도되고 자랑일수도 있으니까요』라고말하기도 했는데、대학박물관은 도서관과 함께 대학의 중요기관의 하나이며 아울러 대학을 상징하는 역할을 겸할수가있다。

더우기 宗立大學인 본교의 경우에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강한 인식을 심어 줄수도 있으므로 박물관 육성을 통한 학교 이미지의 보급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것이다。

현재의 박물관 이용률이 저조한것에 대한 대책으로 박물관의 한 관계자는『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보고자 오랜동안의 재정비 끝에 다시 문을 연것이므로 앞으로「특별전람회」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서 학생들이 박물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일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학생들의 학문연구를 도울수 있는 박물관측의 자료제공등 써비스 기능을 강화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학교당국의 지원과 학생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참여와 이용이 많아져야만 현재의 관람시간도 더욱 늘이고 궁극적으로는 진실로 학생들을 위한、진리탐구를 위한 박물관이 될수 있을것』이라고 했다。

박물관은 단순한 수집품 보존과 진열에 그치는것이 아니라、소장하는 미술품과 역사적 유물 자료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 문화적·예술적 가치와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하며、관람자들의 심리적·정신적 기쁨과 교육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게 전시를 하고 관리하는 항구적 시설이어야 한다。

더우기 대학박물관은 전통문화교육의 기능과 함께 모든 학생들이 항상 수시로 드나들수 있는곳이 되어야한다。

대학에 들어와 졸업할때까지 4년간이나 학교를 다니면서도 박물관에는 한번 들어가 본적도 없이 학교를 떠나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수 없다。

某대학의 경우에는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 기간의 日程중에 박물관 관람을 포함시키고있는데 이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본교에서도 이러한 식의 방법적 모색을 고려해 보는것도 바람직한 일일것 같다。

각종 문화재를 수집 보관 연구하며 학생들을 역사의 현장으로 안내해「산교육」을 담당할수 있는、명칭만이 아닌 기능이 있는 대학박물관이 되기위해서는 소장품의 확보、연구기능의 강화、충실한 자료제공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겠다。

<김영미 記者>

카메라 덧상

흙더미 좀 옮겨야

새 봄소식과 더불어 꽃샘추위도 기세가 꺾여져가는 東岳에는 혈기 왕성한 젊음을 발산하며 學兄들의 뛰며 딸흘리는 모습을 운동장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지난해 말엽에 착공한 혜화관앞의 강의실 공사로말미암아 그곳에 있던 테니스코트가 동우탑앞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강의실 공사로인한 흙을 공대앞 농구장에 쌓아 둔채 그대로 방치해 두는 바람에 그나마 있는 시설도 이용하지 못할 실정이고 보면 관계당국에서는 좀 더 성의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듯。

회전무대

흐뭇한 결실…「가정학회지」배포

관계부처와 학생간의 和合이뤄

○…얼마전 제목과 발행처 문제로 논란이었던「가정학회지」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다는데…

제목과 발행처도「학회지」와「학회」로 그대로 낼 수 있게되어 이는 관계부처의 수고와 학생들의 노력이 그 결실을 보게한것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고。

앞으로도 이렇게 학교당국과 학생들간의 사이가 원만하게 되었으면 하는것이 본 회전무대꾼의 바램。

확실한 준비 필요한「태평양횡단」

○…파랑새호의 태평양 횡단과 더불어 또다시 파도와 싸워 東國을 빛낼 계획이있어 한때 관심을 보이던 학형들을 준비관계상 가을로 연기되어 실망이 대단。

지난달부터 東岳에 나돌던 대한해협 뗏목 횡단이 한때나마 동악인의 관심을끈 것인데。

원래 학도호국단주최, KBS후원으로 4월중에 本校 同門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준비관계상 가을로 연기 되었다는 것。

부디 가을에는 연기하지 말고 확실한 준비로 東國의 意志를 보여주기를 바라는것이 우리 모두의 갈망。

시급한 慶州大 교수 충원문제

○…급격한 학생수의 양적 팽창에 따라 각 대학이 교수부족난을 겪고 있는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慶州大 J科와 H科의 경우 특히 심각한 실정이라고。

J科 3학년의 경우 3月 한달동안 12학점에 해당하는 전공 4과목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초빙외국인 교수가 아직 오지 못하고 시간강사마저 사정상 출강하지 못한 때문이며, H科는 시설문제도 있지만 다른 학과와 달라서 적은 강사료와 지역성으로 강의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학교당국은 나름대로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한달동안이나 전공수업을 제대로 못하고 거의탈진상태(?)에 이른 학생들을 생각하면 교수충원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일듯。

새로운 東國建設위한 각성필요

○…지난 화요일 학생회관 지하 써클룸에서 유리창과 거울이 깨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누가 어떤이유로 깨뜨렸는지 오리무중이라고、

그전에도 술에취한 學兄이 유리창을 깨뜨려 고친지가 얼마안돼 또 이러한 사건이벌어져 써클회원들간에 방범대원을(?)두자는 의견도 나올정도。

학교비품을 내몸같이 아끼는 못할망정 이를 깨뜨려서야 새로운 東國건설은 헛말일것 같이니 모든 東國人을 각성합시다。

여학생을 위해 줍시다

○…몇개 안되는 여학생 화장실에 거울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데。

혜화관 여학생 화장실에 개강때부터 없던 거울이 아직도 설치되지 않고 있으며、다향관 1층에는 있던 거울마저 없어져 많은 여학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여학생 화장실에 거울 정도는 걸려있어야 할 듯。

시합은 졌어도 응원만은 優勝

○…6일 오후 2시부터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제16회 대통령기쟁탈 大學野球결승전에서 영남대와 동아대들을 물리친 본교는 宿敵 高大와 한판 승부를 걸고 처절한 공방전을 벌였는데…。

본교생들은 교수님들께 사정사정하여 오후 수업은 거의 전폐하다시피하고 대대적인 응원을 벌여 東國의 단결된 힘을 誇示하기도。

1루측과 오른쪽 외야석을 꽉메운 본교생들은 응원부의 감미로운 음악과 열띤 리드에 호응하여 그야말로 渾然一體 애교의 一念으로 노래부르고 함성을 연발했는데、마침 후반에는 新任 黃壽永총장님까지 직접 운동장에 나와 응원나온 학생·동문들의 열렬한 갈채를 받았으며 한대화·강정남군등의 홈런이 터질때마다 본교응원단의 환호성은 성동원두를 진동했고 한때는 대망의 우승이 눈앞에 성큼 다가온듯해서 관전하는 東國人들 기대했으나 결국에는…。

1971년 어느날
신문을 받아든 사람들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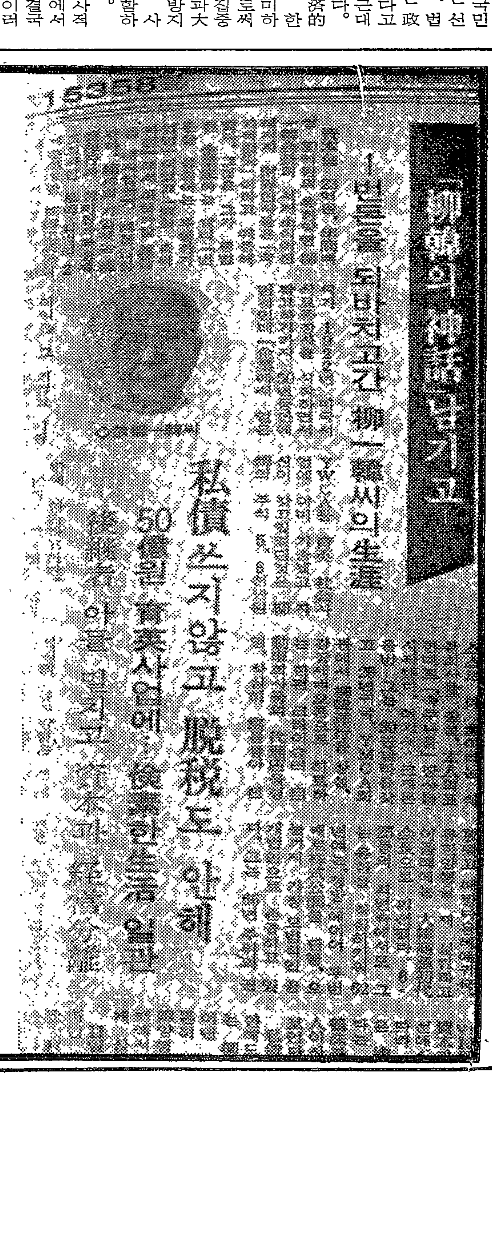
이 말은 국민학교 6학년 도덕교과서에〈사회로 되돌린 소득〉이란 과목의 첫 말입니다。바로 이날은 유한양행의 창설자이신 유일한 박사가 그의 전재산을 사회와 교육 그리고 사원들의 복지를 위해 내놓은 유언장이 세상에 밝혀진 날이었읍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많은 기업가가 있었지만 자기 생애를 통하여 이룬 모든 업적이 온 국민의 보살핌과 사랑의 덕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한평생 모은 전재산을 나라와 사회에 되돌린 사람은 일찌기 없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국민의 마음은 더욱 흐뭇했읍니다。』라고 도덕교과서에는 기록하고 있읍니다。

그로부터 10년、유한양행이 사회로 되돌리는 이윤의 41%는 지금도 자라나는 청소년의 기술교육에、질병으로부터 인간의 건강을 지키는 의학교육에、능력은 있으나 학자금이 부족한 학생들의 장학금에、그리고 청소년의 사회교육에 값지게 쓰여지고 있읍니다。

태어나면서 부터 건강한 삶을 누려야 할 권리와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를 지닌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위해 저희 유한양행은 더 좋은 약、꼭 필요한 약을 만들어 여러분의 건강생활을 돕는 한편、기업활동을 통한 남는 이윤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되돌리어 보다 살기좋은 복지사회를 이룩하는데 이바지하겠읍니다。

株式会社 柳韓洋行



震檀詩
震檀詩 同人會

새책안내

개성화된목소리를 지니고 있는 진단시 동인들이 이번에창간號를 냈다.
각기 시의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이들은 실험의식의 외향보다는 조용한 정신적 육화의 내면화를 통해서 모임의 동질성을 제시하고자 하고있다.
이들은 또한 동질선상으로 귀결시키려는 노력과 실험을 통해서 한국시의 지표를 열고자 하고있다.
<진단시동인회刊·139面·비매품>

광고·방송용어 갈길좀 찾읍시다

과장된 표현·刺戟的인 용어 문제

상업성과 사명의식 부족으로 逆機能 초래
放送街의 유행어 學齡前아동에게 큰 공해

文化批評

사회가 분화되고 발달되어감에 따라 순식간에 쏟아지는 새로운 사실들, 시시 각각으로 변화되는 사회양상으로 어제의 정의가 오늘은 비리로 다스려지고, 불가능하게만 여겨졌었던것이 일부 선각자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듯, 잠시라도 생각을 늦추고서는 이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게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대량으로 쏟아지는 정보를 일반대중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중매체이다.

이 대중매체는 사건의 보도와 사설이나 칼럼난을통한 의견이나, 오락 또는 광고를 통해 국내, 국외의 정세를알림으로써 사회구성원에게 환경을 감시하게하고 조언이나 비판을 하게하고 또한 공통된 사회규범과 가치의식을부여하기도 한다.

이 대중매체중 특히 방송은 음성미디어로써 말을통해 모든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상업성과 방송인으로서의 사명의식 부족으로 용어사용에 있어 전혀 정제되지 않은 무절제한 언어사용은 대중문화의 질적인저하를 가져오는 逆機能을 초래하고 있다.

음성미디어로는 텔레비젼과 라디오가 있고 활자미디어로는 신문이나 잡지가 있다.

이중 특히 문제가 되는것이 텔레비젼이다. 학령전 아동이나 국민학생들은 문자와 어휘에 익숙하지 못하고 특히 한자는 모르는 상태이므로 주로 읽는것 보다는 텔레비젼을 보는 것이 그네들의 주된 여가 생활이다.

그런데 텔레비젼 프로그램 편성은 주로 하오6시 전후로 해서 어린이 대상프로가 조금있고 그 이후로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하는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서민층에는 아직 텔레비젼 이상의 문화시설은 거의 부재상태이다. 그래도어른들이 출입하는 곳은 비교적 종류가 다양하나, 어린이들은 하교후 갈곳이 없고, 관심을 가질만한 것도 없으므로 텔레비젼에 남은 저녁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하는 채널이 하나만 있어도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시청할 수 있는데 초저녁 시간, 잠깐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가 성인대상 프로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자연히 정신연령에 맞지않는 어휘를 알게되고, 그러한 것에 대한 차별능력이 부족하므로 뜻도 모르고 저희들끼리 常用하고 있다.

방송가에서의 유행어창조는 기발하다하겠다. 과거 몇년보다는 유행어의 수준(?)이 조금은 나아졌으나 아직도 귀에 거슬리는 천박한 유행어를 방송인들은 거침없이 전파를 통해 내보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개그맨들이 쓰는 용어이다. 주로 젊은층의 개그맨들은 그네용의 참신에 급급한 나머지 용어선택이 아주 자극적이다. 청소년대상 오락프로에 자주 등장하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주로 性的인 것에 치우치고 있어 그러한 것으로부터 웃음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말도 되지않는 외래어 남용으로 웃음을 짜내려고 한다. 물론 개그용어가 따로있는 것은 아니나, 대상이 청소년이니만큼 어휘선택에 조금은 신경을 써서 발랄하고 명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들의 정서나 생활에 조금은 도움을 주어야 하겠다.

또한 용어사용에 있어 가장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써야하는 아나운서의 경우는 표준어사용이 비교적 잘지켜지고는 있으나어미사용이 어색하며, 한자사용에 있어서 원래한자가 아닌 일본식 한자―수속(절차) 입당(납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외래어도 순수한 외래어가아닌 일본식외래어―테레비(텔레비젼)……가 아나운서의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이다. 더구나 현지보도기자나 뉴우스앵커맨들은표준어가 아닌 기교있는 언어를 쓰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다. 보도내용의 현장감이나 생생한 긴장감을 주기위한연출방법의 수단이라는 美名아래 격렬하고 흥분된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같은 용어에대한 문제의 심각성은 광고에서도 예외없이 나타나고있다.

광고용어를 살펴보면 상업성 우선주의로 지나친 과장성과 외래어 남발, 자극적인 도색용어등 문제시 되는것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판매고를 위한 수단이기는하나, 신간서적안내광고중에 베스트셀러가 아닌것이없고, 영화안내광고치고 대만원, 몇만돌파, 연일매진등등 과장된 광고용어를사용하지 않는 곳이없다. 또 신발류, 의류, 화장품등에서는 우리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찾아보기란 여간 어려운것이 아니다. 셔어츠는 주로 젊은층에서 애용하는 의류의 하나인데 외국가수이름, 영어단어등이 찍혀있는 국적불명의 상품이다.

보세품―거의 대부분이 가짜이지만―이 아닌제도 온통 영어투성이인 화장품이나 신발류도 커다란 문제이다. 소비자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인데 왜 영어가 씌여있는지는 의문이다. 화장품의 경우는 화장품명이 우리말인데그것을 그대로 영어로 표기하는것은 한자식 이두가 아닌 영어식이두(?)가 되어버린 서글픈 사실이다. 지명이나 사람이름같은 고유명사는 여러가지 편리를 위해서라지만상품같은 것에까지 영어가 쓰이는것은 반성의 여지가 있다하겠다.

6·25후 전란을 겪은후 사람들의 말이 거칠어지고 격음화·경음화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시대적 상황 때문에 고운 우리말이 그렇게까지 척박해져야 되겠는가.

이러한 문제해결의 주도적 역할이 방송인의 사명임을 방송인들은 알아야 하겠다. 지나친 상업주의에만 연연하지말고 대중문화 창달이란 막중한 임무가 그네들에게 지워져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대중매체의 영향력은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원자폭탄과 같은 것이다. 대중의 방송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 영향력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라서 나라를 짊어질 어린이들에게 가장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어휘량은 4~5세때 가장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11~13세에 급증하여 그시기에 사고체계가 형성되어진다. 사물이나 사회현상에예민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고 감정의 등요가 극심한 때이니 만큼 방송의 저질적인용어나 자극적인 용어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큰영향을 주고있다. 비단 어린이 뿐만이 아니라 성인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사고를 경직화시키고 결국은 앞에서 언급한 역기능의 역할 수행이라는 배타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땅에 방송이 개국한지는 50여년전의 일이다. 그후 민간방송이 1천9백54년에 개국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제작상의 기계적인 발전보다는 내용상에 있어서 가장핵심적인 매개체인 용어에 중점을 두어 연구 발전시키면 대중문화의 주도자로서의역할을 유감없이 수행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길금희기자〉

◇요즘 젊은층에서는 국적불명의 외래어가 남발하고있다. 이런 주체성없는 행위는 앞으로 지양되야할 중요한 문제로대두되고 있다.

경주대기자탈 수습기

젊음의 한때를 펜으로

깡소주로 신음하며 방황했던 6개월
젊음이 요구하는한 고통의 길 걸을터

◇홍인철기자

환절기마다 섣부르게 인생의 굴레의 한계를 실감하여 늘어지는 앞새와 멀구어지는 落照에 작은 낙서를 대상하던 날이 까마득한 追事로 끝나버린지 오래. 그날의 서막은 지난해시월 초순부터라 짐작하고 싶다.

記事는 눈으로만 보고 덤갑게여기던 나에게 예전의 나와같은 者들에게 評을 받기 위해 손으로빛고, 찢고, 발로 짓이기는 사이 미숙하나마 신문이라는 작품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나왔지만 나오기까지의 경과, 즉 교수님들께 請託을 하지만 白眼視 당할때의 기분은 참혹하리 만치 답답하다. 또 修習이라 先輩記者님께 몇번이고 교정을 받아야 하는 순간들은 時間이 멎기 조차 하는 기분이 든다. 이런 남모르는 고충속에서 완성된 조각품이 활자로 변신했을때는 남모르는 萬感으로 외다리를 걷는다. 좀더 나은, 충실한 내용의 作品을 후회하면서. 그러나 채 다리를 渡河하기도 전, 내것의 작품들이 만신창이가된 裸體로 길바닥에서 허우적 거리는몰골, 화장실 구석에서 窒息한 주검을 바라보노라면 내 삶을 욱실한 정도로 통증을 느낀다.

그러나 오늘 쉬이 저무는까닭은 내일 또쉬이 밝기때문이라는 희망을안고, 태양이 희망을 저어할때까지 자신있게 눈물자욱을닦으련다.

깡소주에 신음하면서 밑창도없는 노스탈쟈의 청춘을현실과바꾸련다. 꺾이지 않는 내 펜의 몸부림이 메아리로만 끝날 그날에 난 비로소 통한의눈물을 흘리고, 생을 비소하리라. 젊음이 요구하는 한 아픔과 고통의 한 없는 오르막길을 여기 동대신문사에서 올라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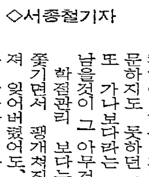
지금은 뵈지않는 먼 미래의 소탈한 웃음을 어떻게 웃어줄까?

내 펜 한자루로 태풍을 저어할 용기가 이 작은 몸에 자꾸만 갑절이 되는 나날이 계속되어 새롭지않은 투쟁이 될때, 다시한번 내 앞의 자그마한 소인생을 비소 할 수 있으리라. 고통을 잊자.

그것이 신문사에서 얻을 내 젊음이리라.

활자화된 조각품에 가슴조여

“신고식때의 각오로 현실과 맞서야지”
기사마감에 쫓겨 팽개쳐졌던 생활들


◇서종철기자

『신고 합니다』 개나발 불듯 원점만 맴돌며 작은 가슴을 소주에절이고 올무젖던 날들이 겹겹이 쌓여 이제 인생의 한 획을 여기그으려 한다. 東大新聞社.

발로 기사를 쓰고 소주는 눈으로만 맛보며 서럽이가 되어야 했던 수습기자 6개월.

무엇이 신문이며 어찌하여 내가 그 엮어진 조각조각의 활자를 이뤄내야 하는 것인지 누구에게 의문하지도 못하던 한 시절이 이렇게 또 가나보다라는 회한 밖에 나에게 남을것이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학점관리 보다는 기사마감에 더 쫓기면서 팽개쳐진 생활의 현실마저 잊어버렸어도, 활자화된 내 작은 작품을 일주일마다 만나는 그 일순의 쾌감에 나의 모든 생의 감정을 이입시켜야 했는지는 아예 묻지도 않으련다.

그 어느 가을저녁 함지박같은대접에 소주를 마셔가며 신고식을치뤄냈던 왜소한 한 인간이 폐부 깊숙이 박힌 외골수로만 버텨내야할 떼져린 나날을 이제 신고식때의 각오보다 더욱 새로운 각오로 때워나가야겠다.

펜을 꺾은 각오로 한자한자 인생을 메워 나갈때 더많은 현실을 잊어야할 당연성은 상쇄되리라.

젊은 한시절은 이미 펜한자루와 바꾸었다.

『우리들의 부모님은 나를 곱게길러서 신문사와서 요지랄하라고 나를 곱게길렀나.』

그렇다.

틀어가는 수업보다 빠지는 시간이 더 많더라도 난 이길을 기꺼이 갈 것이다. 분명나는 학생기자로서 학업이 우선되어야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하든 난 이길을 택할 것이다.

후회하는 날도 많을 것이며 통한의 눈물도 흘릴것이며 괴로운재미에 웃는날도 있으리라.

그러나 이미, 청춘의 루비콘은건넜고 저 멀리 아침이 번뜩이는 로마만이 날 기다리는 그런 젊음을 기대하며 동대신문사에서 내뼈를 추스리련다.

文化短信

삶·사랑·性…주제 6일부터 火曜강좌실시

素眞常교육관은 삶·사랑·성과 너를주제로한 프로그램을 6일부터 매주 화요일 7시 종로2가 가톨릭 여학생관에서 개최한다. 이 프로그램의 날짜별 주제는 다음과같다.

▲6일=性은 기쁜 선물이다. (김수평교수·성모병원 산부인과) ▲13일=청년기의 性과사랑, 그사회적 심리적의미 (김재은교수·梨花女大) ▲20일=청년기의 性과자아의식 (정성덕교수·종로신경정신과)

유네스코敎室개최 「大學生活」주제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보람있는 대학생활을위하여」를 주제로한 유네스코교실을 6일부터 9일까지동회관에서실시한다.

메아리

무지개

▲무지개에 대한 기억은 비록 사람들의생각이 각양각색이고, 마음씨가 다르더라도 일곱색깔이 가져다 주는 아름다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봄이든 여름이든 각박한 세상사를 씻어버리기라도 하듯 시원스런 소낙비가 쏟아지고 나면 으레 하늘을 수놓는 것이 바로 무지개이다. 영롱의 문호 워즈워어드는 무지개의 청초함을 어린이들의 그것에다 비유, 어린이들을 어른의 아버지라 불렀다. ▲시골마을에 사는 어린꼬마가 있었다. 그는 날씨가 흐려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나면 찬란한 햇볕을 받아 어김 없이 나타나는 하늘의 무지개를 무척 동경하게 되었다.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그는 무지개를 갖고픈 마음을 더이상 억누를길이 없어 그것을 찾으러 길을 나섰다. 커다란 산을 몇개나 넘고, 넓은 강을 몇개나 건너도 무지개는 손에 잡히지 않은채 여전히 그를 보고 손짓을 하고 있었다. 이러기를 수십번, 검은 머리칼이 하얗게 변하고, 윤기 흐르던 볼에 검은 수염이 돋아났을때 그는 길가는 行人이 들고 오는 깨진 기왓장을 보고, 그것이 그에게는 진정한 무지개임을 깨닫자 아름다운 이상이 보잘것 없는 현실로 나타나는데 실망하여 길었던 여정을 포기하고 만다. ▲들질문명이 고도로 팽배해 있는 요즈음 사회에서는 이 무지개를 찾아보기란 매우 어려운 일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렸다. 무분별한 공해공장의 난립, 사람이 좀 모여사는 곳이라면 하늘을 찌를듯 솟구치는 굴뚝과 여기에서 뿜어대는 시커먼 매연들이 이 시대의 상징처럼 되어버렸다. 이것들을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하늘이 온통 짜증스럽게 보일 것이고, 사방에 들어선 공장만을 어릴적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이들의 미래에는 건전한 사상이 스며들 틈이라곤 없을 것이다. ▲금수강산이라 불리던 이땅에 처음 공해가 문제시된것은 지난 60년대말 무렵이었다. 우리나라 초기의 공업은 짧은 시일내에 고도의 산업발달을 표방했던 당시 집권층에 의해 미국을 비롯한 일본등 여러나라에서는 공해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을 염려한 나머지 거의 버리다시피했던 산업쓰레기들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전국 곳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곳에서 내뿜는 유독성 가스로 인해 인근농촌의 벼포기들은 말라죽어 들어갔고 농촌민들은 삽자루를 놓게 되었으며, 자본가들은 이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했다. 이들이 생활고와 유독가스에 시달리는 동안 이들위에 군림한 자본가들은 날이 갈수록 富를 축적했으며 저임금 노동자들은 높은 인플레 속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 가고 있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속에서나 볼수 없는 사람들만이 모여사는 작은 동네가 비단 소설속의 이야기만은 아닌듯하다. 이들의 주름진 눈가에서나마 도시에서는 사라진 무지개를 찾으려했으나 도무지 보이질 않는다. 〈博〉

═단편 소설═

愛情變數

요는 그 진실의 쪽이 얼마나 되느냐하는 것이지 조금도 진실하지 않다고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말은 옳다는 가정은 근거있는 것이된다. 어떤 말도 생소하게 들리질 않아―이미 어떠한 말의 가능성도 인정하고 있으니까―대화의 신선미는 감소하겠지만 남의 말을 부정하는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된다. 퍼뜩 어떤 생각이 들어 나는 화제를 돌렸다. 예전에 나는 이런경험을 한적이 있어요. 열이나 열다섯 걸음쯤 앞에서 오는 사람을 계속 바라보며걸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다는 인상만 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내 어깨를 지나칠 땐 어떻게 되어있는 줄 아세요? 남자는 싸움이라도 불사할 듯이 노기 등등한 표정이고, 여자는 처음엔 창백해지다가 가까와질수록 빳빳이 굳어져서 내 쪽엔 시선 한 번 흘리지 못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불과 수 초 바라봤을 뿐인데…。

『방어 본능이 아닐까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 방어 본능이겠죠。하지만 본능치고는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어쩜 인간에대한 믿음이 없어선 지도 모른다는…。』

『서로 모르기 때문이겠죠。』

『그래요?』

나는 쓰게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은 마치 모르면 무조건 적이다라는 구호처럼 들리는군요。그럼 대체안다는건 뭐예요? 알기 전에는 몰랐던것 아녜요? 그리고 자신에게있어 가장 소중한 얼굴이 될 사람이 아직 모르는채인지도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에 대해서만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은 강아지 머리예요。』

『예。강아지의 애정범위라고나 할까요。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아참, 이젠 강아지도 아니죠。새끼도 한 번 낳았는데…。몸집이 커서 짖는 소리도 대단해요。낯선 얼굴이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 하면 용서없죠。목을 죄는 아픔도 아랑곳 않고 달려나가 비상한 적의를 품고 짖어대는 거예요。우리식구의 말이라면 설설 기는 흉내까지도 내면서 그 밖의 사람들에겐 막무가내죠。그렇다고 우리가 녀석에게 특별히 해준게 있나요? 녀석은 다른 집엘 가도 밥을 먹여주고 한번쯤은쓰다듬어 준다는 것을 모르는 거에요。더좋은 밥을 먹고 더 좋은 집에서 잘 수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죠。그러니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여자는 잠시 말이없었다。가운데 손가락으로 탁자 위를 문지르면서 나직히 말했다。

『그건 상훈씨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지도 몰라요。설사 상훈씨의 말이 전적으로 옳고, 그보다 더한 믿음이 있다 할 지라도 그것이 없을 때보다 달리 무엇을 저희가 할수 있겠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단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겠죠。하지만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해낸 겁니다。』

『실행을 못하는 데도요?』

『물론이죠。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무엇에 대해 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되지만 아무것도 모를 땐 전혀 해낼수가 없는 겁니다。누군들 실행할 수 있겠어요?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모든 것은 언제나 소수의 강자만이 할 수있는 거예요。자기가 깨닫고 그것을 싸워 극복하고 그 영광을 누리겠다는 생각도 무리가 있는 거고, 자신은 그것을 못견뎌 했으면서도 새로운 세대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것도 순리를 가로막는 것이죠。진정 가치 있는것이라면 한줄기의 내(川)가 점차 불어나듯이 세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라나는것이어야죠。옳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 사람들이 고군분투할 때 최소한도 묵묵한 동조자가 될수 있고, 다음 세대들이 조금더 완화된 공기 속에서 활동할 수있도록 한 사람의 이해자가 되어 준다는 것이죠。』

말을 마치자 나는 마음 한 구석 꺼림칙한 느낌을 외면할 수 없었다。더 많이 아는 것이 더 잘 이해하는 것이냐고 내 몸 속의 누군가가 묻고 있었다。나는 말을 하려했다。하지만 입이열리지가않았다。

수혜를 나는 이해하고 있었던가。육개월이 지나도록 나는 전화 한 번 하질 않았잖는가。물론 수혜도 하질 않았다。하지만 수혜는 언제나 연락해오는 적이 없었다。누군가가 그 날 수혜가 왜 그런 표정을 했느냐고 물었다면 나는 누구보다도 잘 이해시켰으리라。어쩜 수혜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지도 모른다。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럴 수 있다고 수긍할 것이었다。수혜가 고등학생이라는 것과 일년에 몇 번 만나지 못한다는 말만으로도 당연하다고 하던 친구도 있었다。그러나 정작 나는 수혜를 용서하지 않고있었다。

처음에 나는 그것이 자존심 때문인줄 알았다。시간이 가면 잊을 수 있으려니했다。빨리 그것에 익숙해지려고 애썼다。그보다 더심한 모욕을 참아보기도하고, 여자와 마주치고 여자와 함께걷는 걸음에 익숙해지려고 했다。미팅을 하기도하고, 예전에는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거렸던 친구들의연애담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사랑에 관한 서적들을 들쳐보기도 했다。무언가 많이 변한 느낌도 들었다。

그러나 수혜를 만나야겠다는생각만은 여전히 피하고 있었다。수혜와 나 사이에는 그런 것들로는 해결된 수 없는 뭔가 그 이상의 것이 있는 듯 했다。순간 어떤영감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눈을 감으려 했다。고개를 돌리려 했다。하지만 더욱뚜렷이 들릴 뿐이었다。어쩜 오래 전부터마음 속에 싹터 있었는지도 몰랐다。

정사각형의 보도 블록 속에 구둣발을 채워 넣으면서 내 눈에 머물다 사라져간 여자의 눈을 한걸음 한걸음마다 감촉하고 있었다。경직된 발자국 소리가 방금 여자에게 들려주었던 말과 어우러져 울려왔다。

『내 전화 번홉니다。열흘 동안 기다리겠읍니다。만일 그때까지 연락이 없으면 더 만나실 의향이 없는걸로 생각하겠읍니다』

여자는 연락해 올 것이다。이미 그런게 필요없을지도 몰랐다。하지만 나는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었다。이제는 좀더 정상적으로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무엇보다도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이어야 했다。일방적인 보조를 맞추지 않은 애정이란 또 하나의 수혜를 질식시켜버릴지도 몰랐다。

귀에 익은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수혜가 서있었다。전봇대 뒤에 수혜가 있었다。지하도 입구에도 있었다。희미한영상 속에서의 소녀는 눈을 내리고있었다。까맣고 긴 머리칼에 감싸인 얼굴에서 보조개가 하얗게 떠오르고 있었다。

언제나 그랬다。수혜는 언제나 어린시절의 모습으로 떠올랐다。그걸 이제야 깨달은 느낌이었다。고개를 떨궜다。태양이 그림자를 길게 끌고 있었다。 <끝>

<完>

蔡明植 글
<文理大 국문과>

金載權 그림
<佛敎大 미술과>